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2.05+06

통권 제11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2년 5월 5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에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중견기업 육성, 동반성장 전도사 자임한 **홍석우** 장관

**무역 2조 달러 위해서는
FTA 활용이 중요**

머리글 **송길원**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

5·6월 프로그램

Issue&Seminar

- 윌렘 뱀 폭 전 네덜란드 총리

-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Hot&Issue 손자병법 영업마케팅사관학교

Special Focus 2012 소통아카데미 1기

TPT 멘토대학

CEO 미디어 스피치

회원&연구원 소식

아카데미뉴스

최윤규의 카투노믹스

2012 제주 CEO 섬머포럼

정보비타민

명사초청특강 다이애나 홍 한국독서경영연구원 원장

발행인편지

이인식칼럼



SHIPPING AGENT for LINER & TRAMPER/TANKER



“International Shipping Agent
for Liner & Trumper/Tanker”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Stolt-Nielsen Transportation
Group Pte. Ltd. 

Tanker & Tank Container for Liquid Cargoes.

 Wilhelmsen
Ships Service

 EUKOR Car Carriers Inc.

 GEARBULK
Product & Bulk Carrier

 lodestar
A Container Lines Business

 WILHELMSEN



協運海運株式會社
HYOP WOON SHIPPING LTD.

일험슨협운ships서비스(주)
WILHELMSEN HYOP WOON SHIPS SERVICE LTD.

WESTWOOD
SHIPPING LINES



Korea/
Pacific North West
Semi-Container Service.

株式會社 協運인터내셔널
HYOP WOON INTERNATIONAL CO., LTD.

 FE TRANS

株式會社 新韓商運
SHINHAN FREIGHT SYSTEMS LTD.

SEOUL TEL : (02)3703-0703 FAX : (02)739-3159
ULSAN TEL : (052)261-7206 FAX : (052)267-3504

BUSAN TEL : (051)463-5811 FAX : (051)463-6403
INCHEON TEL : (032)887-2168 FAX : (032)888-7876

웃음으로 풀어 쓴 가정 이야기

결혼식장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가 환한 미소를 머금고 들어선다. 아이가 엄마한테 묻는다. “지금 뭐하는 거야?” “셋! 지금 결혼을 하는 거야?” “결혼이 뭐야?” “응,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야” “그럼, 아빠 엄마는 아직도 결혼 안 한 거야?”

“한밤이 되자, 뒷집에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 다시 쿵광거리기 시작이다. 대거리 사이로 핏대와 삿대가 왕왕 물어온다. 아, 조마조마하다. 저 집, 끝내 조용해지면 마침내 갈라선 거다.” (권혁웅)

이혼만이 아니다. ‘결혼한 독신자’, ‘결혼한 독신녀’가 늘고 있다. 섹스리스 환자들도 엄청나다. 미국에서는 첫 결혼의 41%, 두 번째 결혼의 60%가 이혼으로 끝난다. 이혼 산업 규모만도 1,000억 달러에 이른다. 얼마 전 뉴욕 맨해튼에서는 ‘이혼 엑스포’가 열렸다. 한국에서도 이혼전문 월간지가 생겨났다. 이혼전문 소송 변호사가 생겨난 지는 오래다.

결혼식의 웨딩드레스가 하얀 이유는 자신이 선택한 남자의 색에 물들기 위해서이고 남자만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겠다는 ‘순종’을 의미한다고 한다. 신랑의 검은 턱시도에는 새하얗게 될 때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겠다는 ‘헌신’의 의미가 담겨있다. 옷에 담긴 그런 작은 의미라도 새기고 살 수는 없을까?

‘우리는 사랑을 선택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선택을 사랑해야 한다’ 그 때 우리는 ‘離婚’ 아닌 ‘Re婚’으로 진짜 결혼한 사람이 되게 된다.

복잡한 전철 안

아이가 칭얼대자 엄마가 야단을 친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지. 혼날 거야!” 아이는 막무가내다. 다시 소리친다. “집에 가서 가만 두는 가 봐. 엄마가 어떤 사람 제일 싫어한다고 했지?” 아이가 큰 소리로 답한다. “아빠”. ‘앞으로 생애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콩치로 구입할 것’, ‘두부는 비싸니 많이 넣어 찌개 식으로 하지 말고 각종 찌개에 3-4점씩만 양념으로 사용할 것’ 한 집에 살면서도 6년 동안 메모지로만 대화해 온 노부부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황혼이혼’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넘어서서 해로동혈(偕老同穴), 부부가 죽어 한 무덤에 묻히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워싱턴공항공단 찰스 스넬링 회장이 6년 동안 치매를 앓아 온 아내의 손과 발로 살다 함께 떠났다는 소식이다. 그

는 “아내를 수발하는 것은 60년 동안 받은 뒷바라지의 빛을 갚는 일”이라고 했다.

두 사람을 해로동혈로 이끄는 것은 ‘존경과 사랑(Love & Respect)’이다. 이 둘은 가정을 세우는 두 기둥과 같다. 존경을 소리치면 애정이라는 메아리가 돌아온다. 애정이라고 속삭이면 존경이라는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누가 먼저 소리칠 것인가?

‘거울은 절대 먼저 웃는 법이 없다’ 그 때 우리는 ‘평생원수’가 아닌 ‘천생연분’으로 살 수 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이 말한다. “엄마, 저두요. 근데 엄마 세미나 다녀오셨어요?” 느낌표(!)로 만났다 물음표(?)를 잔뜩 품어 말 없음(...)으로 돌아서고, 끝내 낙인(.)으로 끝나 버린다는 부부(夫婦)의 부호(扶護). 느낌표(!)를 물구나무 세우면 내(이)가 보이고, 앞만 향하던 두 물음표(??)가 뒤돌아보면 하트(♡)가 그려진다. 말 없음(...)도 잇다보면 길(-)이 되고, 낙인(.)도 때를 맞추면 화룡점정(畫龍點睛)이 된다.

순간의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꾸며낼 수는 없을까? 웨인 다이어가 말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바로 길이다.” 그 때 부부는 행복한 부호(富豪)로 살게 된다. **김예**



● 송길원 대표

1957년생으로 고신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개혁신학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을 졸업했다. 송실대 기독교학원 겸임교수와 안양대 신학대학원 가정사역 주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위기에 처한 가정을 구하고 행복을 전하는 가족생태학자로서 행복발전소 하이패밀리 대표, 보건복지부 미래구상포럼 위원, 커뮤니케이션포럼 ‘은유와 상상’ 대표 등으로 활동 중이다. <마음사전>, <말-3분이면 세상을 바꾼다>, <송길원의 행복통조림> 등의 저서가 있다.

May 5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전통과 현대의 창조적융화

제1738회 5월 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근 뉴스를 보면 유럽, 중동, 중남미 등 세계 속 한류열풍에 관한 기사가 자주 눈에 띈다. 과거 드라마에 한 한정했던 한류 콘텐츠가 이제는 케이팝(K-pop), 패션, 음식 등 다양한 장르로 전파돼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한류열풍은 무역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콘텐츠를 통해 해외로부터 거둔 수익은 24억 7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08년 3억 5천만 달러에 비해 7배, 2009년 8억 3천만 달러에 비해 3배가 넘는 수치이다. 그 중 한류의 대표주자 격인 케이팝은 관광, 식품, 화장품 등 유관 산업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끼쳐, 2011년 기준 방한 관광객이 전년 대비 11.4% 증가한 980만 명의 대기록을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한류에도 한계는 보인다. 방송, 음악 부문의 지나친 아시아시장 편중, 마케팅 연구개발(R&D) 부문의 낮은 기초투자, 관련 산업 내부 불공정 거래 관행 및 체계적 유통시스템 미흡, 저작권 인식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등이 그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문화재청장을 거쳐 2011년 9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취임해 한류문화 진흥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광식 장관을 초빙하여, 창작공간과 산업현장을 연계한 콘텐츠산업의 미래와 비전, 그리고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토리텔링 지원 정책에 대해 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려대 사학과 졸업 | 고려대 사학 석·박사 |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 박물관장 | 한국역사민속학회 회장 |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 중국의 고려사왜곡대책위원회 위원장 |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 위원 | 국사편찬위원회 편찬위원 | 한국사연구회 회장 | 문화재청 청장

<상훈> 박물관인의 날 대통령 표창, 올해를 빛낸 중앙인상, G20 정상회의 대통령 표창
<저서> 해상왕 장보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우리 고대사의 성문을 열다, 백제의 신화와 제의, 한국 고대의 토착신앙과 불교 외

이왕준 관동대의대 명지병원 이사장



서울대 의학과 졸업 | 인하대 의학 석사 | 서울대 의학 박사 | 주간신문 '청년의사' 발행인 겸 대표 | 서울대 의과대학 외과학 겸임교수 |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이사장 | 의료법인 인천사랑의료재단 이사장 | 관동대학교 의료원 원장 |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이사장 |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 | 한국의료재단연합회 부회장 |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회장, 이사장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이사장 |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지원위원장

병든 병원을 고쳐라 - 21세기 의료기관 경영의 뉴패러다임

제1739회 5월 1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넷 스위트룸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명지병원에 들어서면 국내 다른 병원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장면들이 눈에 띈다. 소아전용 응급실은 놀이동산처럼 꾸며져 있고, 정신과 입원 병동은 통유리의 녹색 정원에 파묻혀 있다. 방사선 치료실에 들어서면 환자가 취향에 따라 조명을 선택할 수 있고, 치료 중에는 모차르트 음악이 흐른다. 항암제 주사실에서는 환자들에게 아이패드를 지급해 주사를 맞는 동안 개인별 건강관리법을 체크하거나 드라마, 영화를 볼 수 있게 한다.

명지병원의 모토는 '환자 제일주의(第一主義)'이다. 환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겠다는 명확한 '의료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이 바로 '청년의사' 이왕준 이사장이다. 병원경영을 시작한 지 13년 만에 그는 5개 병원에 1,500병상을 거느린 '병원 거물'로 성장했다. 28세에 의료신문 '청년의사' 발행인, 34세에 국내 최연소 병원장, 45세에 최연소 대학병원 의료원장 등 그동안 그의 직함만 보면 서울의대 출신 의사의 승승장구 출세기이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학생운동과 옥살이 등 우여곡절의

삶이 숨겨져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왕준 이사장을 초빙하여 경영난을 겪던 병원을 인수해 짧은 기간에 정상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일신우일신(一新一新), 일보우일보(一步又一步)' 하지는 사명에서 비롯된 21세기 의료기관 경영의 뉴패러다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다국적 기업에서의 글로벌 인재상 및 한국시장의 위상

제1740회 5월 1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달드룸

쓰리엠(3M)은 과학을 기초로 한 가운데 상상력을 바탕으로 의료제품에서부터 도로 안전제품, 사무용품, 그리고 접착제, 연마재 등 수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며 관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매출액 270억 달러를 달성한 쓰리엠은 전 세계 60여 개 국가에 진출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쓰리엠은 글로벌 경영전략 차원에서 각국의 시장 특성과 고객을 더 잘 이해하는 자국인을 사장으로 발탁하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1977년 쓰리엠의 48번째 자회사로 설립된 한국쓰리엠도 지난해 6월, 34년 만에 첫 번째 한국인 사장으로 정병국 사장을 선임했다.

1984년 한국쓰리엠에 입사한 정 사장은 전자부문과 산업용제품 부문을 두루 거치며 관련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고객중심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사업을 크게 성장시킨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쓰리엠은 그동안 고품질의 제품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양성으로 한국시장에서의 위상을 다져왔다. 이로 인해 1996년 외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안전경영대상 기술상을, 2004년과 2007년에는 '바른 외국기업상 최우수상'을, 2006년에는 한국의 존경받는 기업에 외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22위에 랭크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정직성과 성실성'이라는 가치 아래 한국쓰리엠을 이끌고 있는 정병국 사장을 초빙하여 쓰리엠의 글로벌 인재상과 한국시장에서의 위상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병국 한국쓰리엠(주) 사장



인하대 재료공학과 졸업 | 대구고
룡 근무 | 1984년 한국쓰리엠 입사
| 한국쓰리엠 전자제품 사업본부
장, 산업용제품 사업본부장 | 에블
레스트 코리아 사장 | 싱가포르 에
이론 엔터프라이즈 사장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 독일어과 졸업 | 메
릴라웨어대 정책학 석사 | 세계차
세대지도자포럼 한국대표 | APEC
중소기업분야 Coordinator | 캐나
다 국립연구원(NRC) 객원연구원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 중소
기업청 기술혁신국장 |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장 | 지방중소기
업청장협의회 회장 | 중소기업청
차장

<상훈>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원정
책과정 수석졸업(대통령상)

중소기업과 문화예술 - 문화예술로 배우는 삶

제1741회 5월 2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7층 가넷 스위트룸

동양인 처음으로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베트남 출신 피아니스트 당 타이 손, 세계를 감동시킨 슈투트가르트발레단 수석발레리나 강수진, 핀란드 국립발레단의 유일한 한국인이자 수석발레리나 하은지, 세계적으로 성공한 예술인들의 공통점은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극복하여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의 거장들은 성공하기 위해 1%의 행운과 99%의 피나는 노력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기업들도 예술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화예술에는 경영이 있다.

문화예술에 중요한 3C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Culture), 창의성(Creativity), 컨버전스(Convergence)이다. 기업인들이 문화와 창의성을 융합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승부를 걸고, 사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1%의 가능성이라도 존재한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한다.

기업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결코 아마추어라고 볼 수는 없다. 작은 기업이라도 원대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으며, 희망 속에서 어둠을 찾지 않고 어둠속에서 희망을 찾는 긍정적인 모습을 가진다면 분명 강한 기업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중소기업청 차장을 거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에 취임한 임충식 회장을 초빙하여 문화예술의 범주에서 배우는 경영의 지혜와 중소기업의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현대사회 조직이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법

제1742회 5월 3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현대사회에서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술의 발달은 현대사회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높이고, 그로 인한 위기 요소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의 대중화와 의도적인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들의 등장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불러오고 있는 실정기에 효과적인 위기관리 전략의 필요성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이제 기업의 위기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현대사회의 위기는 그 영향력이 크고 파급력이 빠르기 때문에 한 번의 위기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1등 기업도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 반면 위기를 기회로 적절하게 대응하면 기업의 명성을 유지함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다. 위기는 매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충분히 모면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우리 주변에 이러한 위기 요소가 없는지 살피는 것이 위기관리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10년 전부터 한국에 위기관리를 도입한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의 김경해 사장을 초빙하여 조직에서 비밀비재하게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체크해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경해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사장



서강대 영문학과 졸업 | 서강대 언
론대학원 졸업 | 코리아헤럴드 사
회부, 정치부, 경제부 부장대우 |
로이터통신 주한특파원 | 한국최
초 영문경제지 'Business Korea'
발행인, 편집인 | 광명예대사 | 제
2, 3대 한국PR협회 회장 | 한국PR
연구원 원장 | 숙명여대 홍보기획
학과 겸임교수 | 한국PR기법협회
초대 공동회장 | 서강대 영산대학
원, 언론대학원 겸임교수

<상훈> 대통령표창
(저서) 생생한 PR현장 이야기, 위
기를 극복하는 회사 위기로 붕괴
되는 기업, Let's PR, 큰 생각큰 PR

기회인식과 관계창조

제1743회 6월 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인간의 일생은 일의 일생이다. 일을 잘해야 물질적 풍요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생존경쟁이라는 거친 현실이 일의 세계를 슬프게 만든다. 삶의正道(正道)는 생존경쟁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 삶의 길을 뚝뚝하게 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경영자는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된 영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넓은 지적 시야를 필요로 한다. 무한경쟁 속 적자생존의 고통과 아픔에 대한 실존주의적 이해에서 경영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5억 3천만 년 동안 적자생존의 고통을 극복하고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종이 된 곤충과 포유류의 지혜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지혜가 '고객을 찾아 주고받음의 관계를 정립'한데 있음은 확인하고 인간사회에서 주고받음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약조건을 구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제약조건이 생존부동식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은 생존부동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합리적 수단과 방법, 그리고 지식과 지혜의 구명으로 이어진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경영학의 거목인 윤석철 한양대 석좌교수를 초빙하여 인문사회, 자연과학, 경영학 등을 바탕으로 삶을 가치있게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회인식과 관계창조 방법에 대해 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윤석철 한양대 석좌교수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 美 펜실베니아대 전기공학경영학 박사 | 美 펜실베니아대 조교수 | 美 미시간대 조교수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명예교수 | 獨 흥볼트재단 연구교수

〈상훈〉 서울대 총장상, 제21회 정진기논문문화대상, 근정포장
〈저서〉 경영학적 사고의 틀, 프린시피아 매니지멘타, 계량적 세계관과 사고체계, 경영학의 진리체계, 경영 경제 인생 강좌 45편, 삶의 정도 외

최종고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학 석사 |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 | 서울대 법과대 교수, 학생담당 학장보, 교무담당 학장보 | 미국 버클리대 및 하버드대, 듀크대, 하와이대,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교환교수 | 한국법사학회 회장 | 한국인물전기학회 회장

〈상훈〉 한국 출판문화상 저작상, 3.1문화상 학술상
〈저서〉 이승만과 메논 그리고 모윤숙, 괴테와 다산 통하다, Law and Justice in Korea, 자유와 정의의 지성유기천 외

한국 역사 속의 유대인

제1744회 6월 1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뱀류룸

한국에 유대인이 산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부터 누가 살았는가? 이런 질문에 한국인은 단군배달의 단 일민족이라는 민족주의에 젖어있던 때는 물음조차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도 다문화사회로 바뀌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속의 그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도처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살 수 없는 사회란 폐쇄적이고 문제있는 나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다만 지금까지 연구자가 없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 최종고 교수는 '한국인과 유대인의 관계사'를 연구하고 발표했다. 그는 1960년대 서울대 총장을 지낸 스승 유기천 교수의 전기를 썼는데, 유 총장의 부인 헬렌 실빙 교수도 유대인으로서 두 분이 한·유 다문화가정을 이루어 세계적 학자로 활동한 사실을 한 예로 서술했다.

최 교수는 역사를 거슬러 고대에서부터 유대인이 한국에서 살아온 사실을 추적 연구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오늘날 세계 모든 분야에서 탁월성을 발휘하고 있는 유대인 파워에 한국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

어 정치외교적으로 유리한 접점을 찾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한국 역사 속 유대인의 흔적을 통해 한국인의 아이덴티티를 재성찰할 수 있다'고 보는 최종고 서울대 교수를 초빙하여 고대 삼국시대부터 개화기와 해방 이후, 그리고 현재까지 한국사회 속에서 유대인의 발자취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손자병법으로 보는 통일정책

제1745회 6월 2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올해 초 북한과 미국은 미사일 실험중단에 따른 영양지원에 합의하면서 대북 분위기가 개선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이 김일성 100회 생일을 맞아 '광명성 3호위성'을 발사하면서 대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정책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 중 정부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리의 통일정책은 한반도 통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북한의 특수성과 주변국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통일정책은 매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실현가능한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손자병법의 주요 사상을 통해 통일 해법의 단초를 얻을 수 있다. 손자병법 제3모공(謀攻)편에서 손자는 어떤 일을 이루더라도 '깨어지면(破)' 좋지 않고 '온전한 상태(守)'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그래서 모든 군대나 나라는 '자보이전승(自保而全勝)'을 목표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손자는 벌모(伐謀), 벌교(伐交), 벌병(伐兵), 공성(攻城) 등 네 단계의 전략을 제시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에 손자병법 붐을 일으키며 정통 손자병법 학자로 잘 알려진 노병천 박사를 초빙하여 손자병법의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 통일정책의 해법을 제시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노병천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원장



美 미드웨스트대 리더십 박사 | 육군사관학교 35기 졸업, 대령 예편 | 나사렛대 교수, 부총장 | 미국 지휘참모대학 교환교수 | 육군대학 교수, 전략학처장 | 미국 MC-TV 부대표 | 미국 제네시스대 부총장

〈상훈〉 국방안보분야 세종문화상
〈저서〉 도해손자병법, 도해세계전사, 나쁜 전쟁 더 나쁜 전쟁, 기적의 손자병법, 이순신대학 불패학과, 구약전쟁의 전략과 리더십, 하나님 병법사

조환익 한양대 석좌교수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美 뉴욕대 경영학 석사 | 한양대 경영학 박사 | 제14회 행정고시 | 상공부 미주통상과장 | 대통령비서실 경제비서실 부이사관 | 통상산업부 산업정책국장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차관보, 차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사무총장 |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 법무법인 율촌 고문

〈상훈〉 대통령표창, 황조근정훈장
〈저서〉 한국 밖으로 뛰어야 산다, 우리는 사는 줄에서이다

명암의 공존, 2012 세계경제 - 글로벌시장의 미래와 전략

제1746회 6월 2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미국 경제의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의 안전지대까지 신용불안의 여파가 번져나가고 있다. 중국의 경기하강과 맞물려 여전히 무겁게 드리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특징적인 트렌드와 대응전략을 짚어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출보험공사와 KOTRA 사장을 역임한 조환익 교수는 한국경제가 오히려 불황기에 강하며, 무엇보다 한국인 특유의 근성이 마케팅에도 작용해 우리나라의 단단한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국 경제는 사는 줄에서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갈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착한 기업문화의 확산 등 밝은 트렌드를 읽어내고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미래와 세계를 향한 역량과 전략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조환익 한양대 석좌교수를 초빙하여 주요한 트렌드로 세계경제의 지배구조 변동을

구미판과 아태판의 충돌로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경제의 초융합 현상을 강조하고 탐욕의 부활과 재해의 일상화 등 불편한 진실과 실용적 소비패턴, Soft, Open, Speed로 특징지을 수 있는 미래사회로의 접근을 통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윌렘 빔 콕(Willem Wim Kok) 전 네덜란드 총리
3월 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제1730회 인간개발경영자연회

자본주의의 대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지만 20~30년 전 한국의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 한국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인식, 사회프로그램의 발전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이다. 또한 한국과 한국 국민 모두 외부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국과의 교류, 외국의 성공사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Work & Life Balance가 중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세계는 최근 어떤 세기보다도 커다란 혼란에 빠져있다. 세계경제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시아 국가들, 특히 세계의 파워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몇몇 국가들 덕분에 전 세계가 동시 위기에 빠지지 않고 있다. 한국 역시 금년 3.5%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유럽의 기준으로 보서는 대단한 성장률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부채 위기는 높은 실업률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 은행 및 금융권의 과도한 탐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기업가와 정치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의 경우도 노동자들이 삶의 질, 근로조건, 열악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Work & Life Balance', 일과 자기 삶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국 1%의 사람들이 99%를 무시하는 형태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한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당장 시장경제를 대체할 뚜렷한 대안은 없다.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것을 운영하는 국가경제체제 역시 효율적이지 않다.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국가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하거나 시장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좀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형태의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 재정분야, 정치가들의 몫이다. 따라서 기업가, 정치지도자들은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를 극복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또한 GDP 성장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을 경제성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내에서 혹은 국가 간에 서로 체계화된 '대화'가 필요하다.

내 일생을 통해 확인한 진리가 있다.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등 4자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게 일하는 사회가 성공한다는 명제가 그것이다. 특히 경제발전이 그 나라 내부의 요구만 충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그룹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생태학적 부분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 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의 관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성장, 사회적 통합, 지속적인 환경조건을 유지하는 3가지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3가지 과제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은 물론 쉽지 않다. 특히 경제성장이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는 더욱 어렵다. 유럽의 경우가 그렇다.

개혁을 위한 연합과 협력 통해 신뢰 재구축해야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으로부터 시작됐고, 이어서 유럽으로 전파됐으며, 금융 부문의 규제와 감독이 부실했던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기침체는 결국 위기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그것이 2010년에는 거의 끝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공공재정, 부채 부담으로 인한 문제들

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유럽지역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높은 재정적자가 결국 정부로 하여금 긴축재정을 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서 사회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각 국가들은 경제성장도 해야 하고, 고령화된 인구를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는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바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한 개혁을 하지 못했던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개혁을 늦게 하면 할수록 그 고통의 대가는 훨씬 크다. 결국 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이다.

이것은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 즉, 기업과 노동조합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공유하는 문제이다. 과연 이들이 상호 경청하면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결국 앞으로는 좀 더 통합적이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위해서 시장과 국가는 함께 일해야 한다. 이 때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은 피해야 한다. 시민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성공의 열쇠이다. 세계는 상호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글로벌리제이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잘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은 글로벌리제이션에 의해 오히려 방치되는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사회적 보호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외시되고 있고, 뒤처지고 있고, 새로운 자기전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상호 간의 연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재구축해야 한다.

네덜란드나 스칸디나비아 국가, 독일 등은 오늘날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사회복지국가 모델을 이루어왔다. 개인적으로는 통합의 정치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다.

각 국가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갖고 있다. 또 각 국가별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좀 더 강한 파트너십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 상호 의존적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상호존중, 상호이해, 그리고 사회적 대화가 필수사항이다. 이것은 좋은 삶든 반드시 해야 한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널토의



[패널1]

김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 前 산자부 장관

아담 스미스 이후로 케인스자본주의, 그 뒤로 신자유주의, 그리고 지금 자본주의 4.0 시대가 도래했다. 자본주의가 금융자본주의로 발전하고 그것이 정권화, 특히 파생상품자본주의로 발전하면서 주주자본주의와 결합했고,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없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 상태에서 세계의 위기가 왔다. 고삐 풀린 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가 지금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에 시달리자 한동안 케인즈의 부활을 기대했다. 그러나 지금 케인즈가 세계경제를 구원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시장의 실패를 얘기하지만 지금은 정부의 실패에 이은 시장의 실패이다. 이러한 실패 사이클이 아니라 정부의 좋은 역할, 시장의 좋은 기능에 더해서 시민사회의 좋은 기능과 역할이 잘 결합한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위기를 거뜰히 극복했다.

정부에도 좋은 기능이 있지만 무조건 '큰 정부'로 갈 수는 없다. 시장에도 좋은 역할이 있지만 '큰 시장'으로만 갈 수 없다. 이에 대한 컨트롤 기능으로서 '큰 시민사회'의 기능이 잘 결합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자본주의는 발전과정에서 '외부화' 전략을 취했다. 인간은 자연에게, 선진국은 후진국에게, 자본가는 노동자와 농민에게 비용과 책임을 전가했다. 그런데 그동안 외부로 전가해오던 것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자연은 파괴되고, 후진국은 빈곤해지고, 서민은 구매력을 잃게 되었다. 그러자 인간, 선진국, 자본가의 설 자리가 사라지게 된 것이 최근 경제위기의 본질이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내

부화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부화에 있어 중요한 것은 '책임'이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파괴된 외부에 대한 환경, 소비자, 노동자, 개도국, 인간의 삶을 끌어안는 기저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자본주의가 대안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적 책임 금융(SRI), 사회적 책임 소비(SRC), 사회적 책임 노동(SRL), 사회적 책임 정부(SRG) 등이 더 꽃을 피워야 한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사회적 책임자본주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단, 사회적 책임 경영이 재무적 성과로 이어져야 지속가능성을 획득할 수 있다.



[패널2]

문국현
뉴패러다임인스티튜트 대표
/ 前 유한킴벌리 대표

우리가 외국 모델을 따라갈 때 꼭 이야기하는 것이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화와 독일의 중소기업 중심의 평생학습체제이다. 특히 전 세계 명품 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제도를 많이 이야기한다. 사회적 대화와 평생학습이 필요한 지식경제시대에 빔 록 전 총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공하는 사회의 6가지 조건'에 대해 생각해봤다. 첫째, 공정성과 포용성이다. 이 사회가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공하는 사회는 공정성과 포용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둘째, 신뢰와 상호의존에 기반 한 대화이다.

셋째, 시민사회의 참여이다. 한국은 정부주도형이나 기업주도형은 있지만 시민주도형 사회는 아니다. 넷째, 경청의 문화이다. 우리사회에

경청의 문화가 있는지, 기업은 정부를 정부는 기업을 또 사회를 서로 닦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다섯째, 일과 삶의 균형이다.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Work & Life Balance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직장에서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의 성공, 사회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가능하다. 자녀와의 대화가 없는 직장생활, 미래가 없는 과로사회는 극복해야 한다.

여섯째, 평생학습과 지식사회이다. 학습하는 지식인들에게는 글로벌 경제의 기회가 더 많아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자, 패자가 된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매년 17조 원을 산업재해 비용으로 지불하고, 산업현장에서 10만 명이 희생되는 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10년 노사정 합의로 연간 근로시간을 2,300시간에서 1,800시간으로 줄이기로 결정하고도 10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만들어낸 지혜의 산물이다. 실제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게 현실이다. 동시에 현재의 자본주의체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자본주의체제가 절제를 상실했기 때문에 5가지 불균형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다.

첫째, 글로벌 불균형이다. 미국의 과잉지출과 중국의 과잉축적이 국제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둘째, 성장과 고용의 불균형이다. 성장은 있고 고용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셋째, 실물과 금융의 불균형이다. 지금의 금융상품은 도저히 해독 불가능한 난수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의 쇠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넷째, 개발과 환경의 불균형이다. 다섯째,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이다. 자본주의가 살려면 불균형이 균형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력보다 도덕성, 물적자본보다 인적자본, 시장의 힘보다 정부의 힘, 성장보다 복지를 중시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도덕성과 윤리,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환경에 대한 존중, 분배와 복지, 삶의 질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는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상당기간 자본주의체제는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사실 한국모델은 GDP 100달러 빈곤국가에서 2만 달러 선진국가로 성장했고,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 국내적으로는

OECD 국가 중 빈곤율이 가장 높고,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고용률이 가장 낮은 상황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 사회적 대화가 가능하려면 노사의 균형도 필요하다. 노조의 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그것마저 대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대표성을 갖기 어렵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편적 발언을 하기도 어렵다. 이것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해결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 투자의 광범위한 확산과 발전을 통해서 시장의 실패로 파생된 시장의 탐욕과 모순, 그리고 지속불가능성의 문제들을 일부분 극복하고 개선해나갈 수 있다.

사회책임투자자들의 현실 진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금융시장의 단기 투기이다. 나는 이것을 '샷텀 잼블링'이라고 말하고 싶다. 마라톤은 42.195km의 거리를 누가 먼저 완주하느냐의 시합이다. 그런데 도박사들이 구간마다 베팅을 하고, 마라토너가 그것을 민감하게 의식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오버 페이스'를 할 수밖에 없고, 심할 경우에는 레이스를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도 높다.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성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금융시장과 상당히 닳아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기이익에 집착하는 상황에서는 길게 보고 멀리 보며 기업의 가치를 높여나가기 매우 어렵다. 사람에 대한 투자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런 폐해가 결국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대재앙을 몰고 왔다.

자본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투자가 해법이 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사회적 책임투자가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5년 정도만 해도 투자 규모가 '제로'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약 5조 원 규모로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성과, 재무적 성과간의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아직 사회적 책임 투자의 갈 길은 멀다. 특히 국내에서는 전체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SRI 펀드 규모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SRI 펀드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더욱 제고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SRI 펀드가 만들어지며, 이것이 다시 착한기업에 투자된다면 금융시장을 통한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제173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세계적 Big Bang과 우리가 나아갈 길

우리가 매년 중국과의 외교전쟁에서 끌려 다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속내를 모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중국은 이중성, 모호성, 진화성, 변화성, 다양성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진실이 많은 나라이다.

고복지, 저효율, 고부채로 인한 대전환기 맞은 세계경제

우리가 흔히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소인배에 가깝다. 여기에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된다. 중국과의 외교에서 100전 100패하는 것은 중국을 너무 대국으로 보기 때문이다. 중국이 선진 문화를 가진 것으로 보는데 사실 중국은 굉장히 후진적이다. 자신들은 스스로를 문화국가라고 하지만 급하면 힘을 먼저 쓰는 개도국에 불과하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고, 언론의 자유가 완전하지 못하다보니 가

지향적이기 보다는 실리주의적이고, 돈이면 다 된다는 천박한 자본주의화가 되어가는 형국이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식인사회가 움직이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금도 중국은 변화하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변화하지 않는 것이 중국적 DNA이다.

중국은 지금 엄청난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 이는 중국 내부 요인에 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외형적인 것으로 전 세계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에서 비롯된 것도 많다. 지금 이 시대는 한 마디로 전환의 시대이다. 전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가운데, 한국은 긍정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일본을 포함한 서구의 문명이 하락기에 있는 것은 '누림의 문제' 때문이다. 너무 많이 누리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 과거 그리스와 로마가 그랬고, 수많은 제국들이 과도하게 누려서 망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도한 누림은 결국 높은 복지를 요구하게 되는데, 내부의 조달 가능한 자원이 고갈된 상태, 포화된 상태로는 더 이상 복지가 어렵다. 그래서 과거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자원을 다 쓰고 나면 새로운 여백을 창출하기 위해 식민지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금은 식민지나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기술전쟁이다. R&D, FTA 등을 통해 신 영역을 개척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여백을 창출해야 하는데, 여백 창출로 늘어나는 누림, 복지 수준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일본을 포함해 선진국들이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포화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무너진 것과 같다.

앞으로의 세계는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신 여백을 발견하고, 창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이 긍정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나라들 사이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이다.

근접한 중국이 아직 개발되지 않고,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잠재성장력이 높다. 잠재성장력이 낮을수록 선진경제라고 하는데, 그것과 비례해서 복지가 증가하면 나머지를 빚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고복지, 저효율, 고부채 구조로 가면서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두 개의 실밥으로 버티는 야구공 같은 중국

또 하나의 큰 전환은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불만은 욕구체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관리가 가능한 불만이나 불평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이다. 욕구의 부족으로 분노한다면 분노관리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불만이 큰데, 바로 욕구체계와 정치의 실종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국민들의 욕구체계는 끊임없이

상향조정되는 반면 정치적으로 불만을 분노화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정치적 리더십이 약화되면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가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문화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1년에 수십만 건의 데모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불만이 분노의 폭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신 여백이 끊임없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큰 빙하가 급속도로 녹아내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양의 물로 메마른 대지를 적셔가는 것이다.

중국의 빙하가 녹은 물이 불만 불평을 잠재워왔는데, 국민들의 욕구 체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욕구관리에 성공하려면 정치체계가 유연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공산당의 1당 독재체제로는 힘들다. 종교가 인간의 욕구체계를 관리하는데 유용한 수단 중 하나인데, 종교와 언론을 막아놓고 말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젠가는 불만 불평이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가족 2개를 켜면 야구공과 같다.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를 단순히 봉합한 상태로 온전하지 않은 실밥으로 이어져 있다. 공이 점점 커지면 실밥이 터질 수도 있다는 것을 원자바오 총리가 지적한 것이다. 전환시대의 진입을 우려한 것인데, 인간의 욕구 관리에 실패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권력투쟁이다. 전환기의 순서와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을 두고 투쟁하다 보면 권력투쟁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지나면 정리가 되는데, 이 변화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중국의 정치체제이다.

중앙에서 각 지방까지 당서기가 감시하는 1당 지배 체제에서의 관료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각 지방마다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서 중앙과 당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양한 욕구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중국의 집단지도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집단지도체제 하에서는 급격하게 뛰쳐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대전환기를 맞이해 긍정적인 전환을 맞이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렇게 되면 실밥이 터질 수가 있다.

실밥이 안 터지게 하는 방법은 다가올 시진핑 시대 10년의 과제로 1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불만, 욕구체계의 변화를 수용해서 분노로 폭발하지 않게 유지해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시진핑 시대는 굉장한 혼란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예상해 본다면, 먼저 공산당이 나쁜 것이 아니라며 국민 공동의 적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숙청할 것이다. 그리고 당의 간부들, 지방 관료들을 이용해 반부패운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할 것이다. 반부패 운동을 하면서 진짜 부패한 사람만 정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뿌리 자체가 썩어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한계가 있다.

그다음 예상 시나리오는 각 지방의 인민대표를 직선제로 선출해 당내 민주화를 꾀하는 것이다. 당내 민주화를 통해 분위기를 달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다.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치리더십 회복이 개혁의 출발

일본은 지금 두 가지의 결함을 갖고 있다. 일본은 지도를 굉장히 열심히 보는데, 이것은 섬 국가들의 한계로 주변 작은 섬들에 집착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데 지도는 볼 줄 알지만 나침반은 볼 줄 모른다. 전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일본의 경제는 모든 부품소재를 최첨단화해서 일본에서 만들고 조립해서 수출하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생산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이 2008년 -12% 성장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일본은 변화에 대한 대응도 약하고, 생산과 수출을 개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밀려나가고 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세력을 중심으로 중국을 엄청난 포위망으로 둘러싸고 있다. 중국은 17개의 적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을 힘으로만 누르려고 하니 오히려 반발만 심해졌다. 중국은 미국의 대 중국 봉쇄 정책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한·중 FTA를 원하는 것도 무역에 있어 미국의 봉쇄정책의 퇴로를 만들려는 지구책의 일환이다. 북한을 끌어안으면서 나진항을 만들어주려는 것도 결국 퇴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빅뱅이다. 누리려고 하는 자가 결국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서 나오는 엄청난 실망이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부정

적으로 봄으로써 경제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개혁이 필요하지만 개혁을 실현할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체제적인 개편을 할 수 있는 정치리더십이 너무 약하다. 그 이면으로는 국민들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신 영웅이 등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전면 개혁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시장경제도 정부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불신만 낳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규모 금융개혁을 했다면 지금에 와서 무언인가 정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미봉책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의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이것이 세계 글로벌 리더십의 위기를 가져온 이유이다. 미국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씌워준 세 개의 우산이 있다. 첫째는 핵과 안보의 우산이다. 둘째는 금융과 통화의 우산이다. 셋째는 국제정보와 외교의 우산이다. 우리는 이 세 개 우산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는데, 지금 와서 그 우산이 자꾸만 약해지고 있다.

남북통일이 대한민국 생존권 확보 열쇠

우리나라가 거대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다면, 남한의 국력만으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직면한 것이 북한사태이다. 결국 남북이 통일되지 않으면 동아시아시대에 있어 한국은 독자적인 생존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우리의 과제는 과연 한국이 미래의 생존방정식과 통일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푼다고 했을 때 상수와 변수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생존방정식으로만 얘기한다면 중국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나 통일방정식까지 생각한다면 중국은 분명히 상수가 된다. 우리가 중국의 본심을 알고자 하는 것도 중국이 상수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통일을 이루고자 할 때 중국은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고, 중국과 합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체제를 이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다.

앞으로 한국은 경제·외교안보적으로는 중국화의 물결에 휩싸일 것이다. 국내 정치·사회적으로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 정치는 무능하고, 사회적으로는 양극화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때문에 경제·외교안보적으로 중국화의 파고를 넘고, 국내 정치·사회적으로는 일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과연 중국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놓고 봐야 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통일을 이루지 않고는 안전하게 버틸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 불가피하게 복지의 확장기에 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영광된 조국을 물려주기 위해 현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벌써 두 세대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소득 2만 달러, 구매력 평가 3만 5천 달러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를 보면 복지의 확장기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세계적인 전환기시대에서의 자원배분이 복지의 새로운 확장기와 외교안보적인 충돌시기를 놓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국력을 키우고 자원을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세계의 경제는 2001년 9·11 사태 이후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체제가 무너질까봐 엄청난 돈을 퍼부었다. 저금리시대로 가면서 차입으로 엄청난 빚을 확대하였다. 그것이 2007년 말부터 폭발하기 시작해 2008년에 완전히 주저앉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복구하는데 약 7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전 세계적인 금융조정이 2014년에 완결된다고 한다면, 2013년 말쯤 예고 지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2014년에 다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 이 2013년이 전 세계적인 정치리더십의 복원기가 될 수 있다.

금년에 전 세계에 많은 국가지도자들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 대한 재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2013년, 2014년에 어떤 고삐를 당기느냐에 따라서 한국이 발전하느냐

나 후퇴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다.

과거 우리는 3%대의 저성장을 3년 연속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지금 기업들은 버텨야 한다. 그리고 2014년 이후의 체제를 준비해야 한다. 물론 정치질서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여백을 찾아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신 여백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에 굉장한 집중이 필요하다.

이제는 모든 걸 떨치고 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데, 세계적인 빅뱅의 전환기를 맞아서 위험관리를 잘 해야 한다.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공생해야 되고, 정치 사회적 리더십이 현재와 같이 무기력해지면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는다. 정치인, 지식인, 아버지, 어머니, 기업인, 선생님, 종교지도자 모두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두 자기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그 다음으로 국격에 맞는 국민격을 가져야 하고, 정당한 승자가 존중받고 기꺼이 나누고, 실패자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체제, 부국강병, 지구적 가치추구, 건강한 복지제도를 가진 강한 중견국가로 가야 한다. 그리고 지도만 보지 말고 나침반을 봐야 한다. 땅만 보지 말고 지평선을 보며, 생존방정식과 통일방정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폭넓은 지혜가 필요하다. **KH&I**

최강 세일즈 戰士를 육성하는 손자병법 영업마케팅사관학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白戰不殆 -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손자병법의 기본적인 방법이다. 상대의 생각을 꿰뚫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아 상황에 대처한다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손자병법으로 깨치는 통섭(統攝)

오늘날에는 통섭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되어 있다. 통섭의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손자병법을 통해서 통섭의 원리를 깨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된다. 중국의 후진타오가 미국을 방문할 때 부시 전 대통령에게 건네준 선물은 바로 손자병법이었다. 후진타오는 손자병법을 통해 부시에게 중국의 저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늘날 손자병법은 비단 중국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애독되고 있고, 리더십, 마케팅, 경영기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손자병법을 연구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다.

국내 손자병법의 최고권위자인 노병천 박사의 정통손자병법은 쉬운 해석과 함께 손자병법의 기발한 전략전술을 상황과 매치하여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제1장 시계(始計)편부터, 작전(作戰), 모공(謀攻), 군형(軍形), 병세(兵勢), 허실(虛實), 군쟁(軍爭), 구변(九變), 행군(行軍), 지형(地形), 구지(九地), 화공(火攻), 용간(用間)편으로 이어지는 손자병법의 핵심을 통해 리더로서 협상과 상담을 주도해나가고, 갖가지 전략전술을 영업마케팅에 접목시켜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알아간다.

손자병법 영업마케팅사관학교 1, 2기 배출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월과 4월 손자병법의 13가지 전법과 영업마케팅을 융합하여 실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손자병법 영업마케팅 사관학교' 1기와 2기를 개강하였다. 회원사 및 관계사의 CEO, 임원과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해 영업마케팅 실천 전략을 세우고 본인의 강점과 약점 등을 파악하여 손자병법을 활용한 상황별 대응 전략 등을 학습하였다.

그간의 영업교육이 획일화된 교육으로 단순한 교육으로만 끝났던 것에서 탈피하여 손자병법의 핵심과 영업마케팅의 실무를 융합하여 본인의 현 수준을 체크하고, 영업마케팅의 단계별 전략을 적용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영업마케팅의 계획 등을 수립함과 동시에 실무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손자병법의 대가에게 배우는 정통손자병법의 정수



노병천 원장은 1975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37년간 손자병법을 연구했으며, 배낭을 메고 세계 40여 나라의 전적지를 답사하면서 현장의 살아있는 병법을 익혀 <기획의 손자병법>, <도해손자병법> 등 30권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육사가 낳은 천재, 독보적 존재, 손자병법 대가라는 별칭과 함께 청와대, 경기도청, 삼성입원과정, 장성아카데미, 대학, 미국로터리클럽 등 국내외에서 1,500여 회의 특강을 진행하였다. KBS 아침마당 목요일 특강 '손자병법으로 배우는 인생처세술'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으며, 현재 삼성 SERICEO에서 6년간 노병천의 전쟁과 전략을 방송하며 중앙 SUNDAY에서 인기리에 손자병법을 연재하고 있다. 육군대학전략학처장 겸 손자병법교수 7년, 미국지휘참모대학(CGSC) 손자병법교수 3년 등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손자병법 전문가로서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및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KSLI)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국내 1호 영업마케팅 융합박사의 실전 영업전략의 핵심



김덕희 박사는 세일즈맨으로 출발하여 대우자동차(주) 영업팀장(630대 판매 기록), 삼성메디슨(주) 병원전략영업부장, 현대디지텍(주) 전략사업본부 상무이사를 거쳐 인천

대학교 경영대학교 겸임교수, 인간개발연구원 상임이사, 고용노동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업실무와 마케팅이론을 겸비한 국내유일의 논문을 발표하여 KBS 등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위대한 세일즈맨>, <디지털시대의 비즈니스 원리> 등의 저서가 있으며, 국내 최초로 영업실무와 마케팅의 이론을 융합한 융합전문가로 이름이 높다. 특히 세일즈맨으로서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내고, 국내 1호의 영업마케팅 융합박사가 되기까지의 실전적 영업마케팅의 노하우를 MBO(목표관리), 감성세일즈, 성과관리, 상담, 협상, BATNA기법, 4P전략 등으로 풀어내고, 다양한 Top

Salesman의 사례와 함께 영업 전략과 실행계획을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갖춰서 실행한다. 현재 다양한 국내기업 및 글로벌기업에 영업마케팅 융합의 전도사로서 본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많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손자병법과 영업마케팅의 환상적인 매칭

손자병법의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1)리더를 위한 책 2)방어적이 아닌 공격적인 책 3)경쟁상대를 염두에 둔 책으로 오늘날 치열하고 냉혹한 경쟁환경에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하며 영업마케팅의 실전 전략 수립을 통해 이기는 영업, 이기는 제안 등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다. 본 사관학교를 수료한 한 영업임원은 "어려운 손자병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영업마케팅과의 매칭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현재 본 사관학교의 원우회가 구성되어 영업정보의 교환과 원우회 회원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손자병법 영업마케팅사관학교 커리큘럼

모듈 1 전략적 결심/준비	1. 새로운 도전과 정신무장 2. 전략적 체크 리스트 작성 3. 전략적 승산 판단 요령	모듈 1 트렌드 분석의 중요성	1. 트렌드 분석 2. 시장환경분석 3. 영업전략(SWOT)수립
모듈 2 피로 싸우는 방법	1. 경쟁의 단계별 스펙트럼 2. 현명한 경쟁전략, 부진승의 실천 3. 상사의 간섭과 자율	모듈 2 영업목표 수립과 성과관리 전략	1. 고객 라이프 스타일의 특성 파악과 시사점 도출 2. 마케팅전략(STP) 수립과 전술(4P)의 실행
모듈 3 기세를 타는 방법	1. 최강의 조직체 만들기 2. 차원 높은 성공의 철학 3. 강력한 세를 발휘하는 방법	모듈 3 고객과 소통하는 감성세일즈	1. 감성으로 접근하는 영업전략 2. 질문하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모듈 4 허실의 전략	1. 경쟁 환경에서의 주도권 장악 2. 강과 약, 허와 실의 논리 3. 고정관념을 깨는 방법	모듈 4 고객영업 상담 기법	1. 비즈니스 4단계 2. 설득상담 스킬 3. Role -Play
모듈 5 변화의 전략	1. 우직지계의 지혜 2. 변화와 창조 기술 3. 리더의 위험한 성격	모듈 5 전략적 영업협상 기법	1. Win-Win Paradigm 2. BATNA & 대안의 적용사례 3. 실습(Practice)
모듈 6 위기 돌파 전략	1. 속지 않는 14가지 비결 2. 32가지의 징조와 대처법 3. 위기관리와 위기돌파	모듈 6 영업 마케팅의 시사점	1. Top-Sales man의 사례 2. 고객가치 창출 3. 고객관계관리(CRM)

중견기업 육성,
동반성장 전도사 자임한 홍석우 장관
무역 2조 달러 위해서는
FTA 활용이 중요합니다



사진 · 오경근 원장

“중견기업 육성 틀을 다진 장관, 동반성장 문화를 정착시킨 장관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중견기업 시책 마련과 동반성장 문화 정착만큼은 올해 안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올해를 ‘중견기업 육성 원년’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육성 종합대책을 마련해 2015년까지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과 같은 중견기업 3,000개를 키워내겠다는 목표다. 성과공유제 확산을 통한 대·중견·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형성도 임기 내 이뤄야 할 중요한 목표다.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세계경제 회복세가 더뎠지면서 수출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무역 1조 달러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긴 하겠지만 FTA를 잘 활용한다면 무역 1조 달러를 넘어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FTA가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역설이다.

평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을 지닌 홍 장관은 취임 이후 꾸준히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체험하면서 불편사항을 곧바로 개선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지난 4월의 마지막 일요일, 홍석우 장관을 그의 집무실에서 만났다. 인터뷰가 끝나기 무섭게 관계 부서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관에게 주말은 그냥 쉬라고 있는 주말이 아니었다. 일에 대한 강한 추진력과 집중력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토양 마련에 분주한 홍 장관에게 올 한 해 지경부 정책 운영방향과 목표를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중견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올해를 ‘중견기업 육성 원년’의 해로 정하셨습니다. 특별히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해 처음으로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중견기업이란 대기업 중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른바 재벌에 포함되지 않는 대기업이죠. 대부분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부터 시작해 한 상품이나 분야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나름의 일가를 이룬 기업들입니다. 독일의 히든챔피언 기업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런 만큼 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로서 모든 중소기업의 꿈과 희망입니다. 무역 2조 달러 시대의 새로운 수출 원동력이며, 신성장 동력의 확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이 되는 것은 모든 중소기업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중소·중견·대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부담이 급증하고, 법령·제도 내에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등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독일, 일본 등 외국에 비해 중견기업의 비중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기존의 중소기업 정책과 차별화된 성장·혁신 시책을 집중적

으로 발굴하고, 성장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중견기업 정책의 틀을 다진 장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설립한 중견기업국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산업의 허리이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을 전담하는 중견기업국이 5월 1일 신설됩니다. 중견기업국은 산재해 있는 중견기업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중견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견기업국은 산업경제실 내에 설치되며, 중견기업정책과, 혁신지원과, 성장촉진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는데요. 중견기업정책과는 중견기업의 육성에 관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 및 예산을 총괄하는 등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혁신지원과는 중견기업의 기술 혁신 촉진, 해외진출 지원 등 글로벌 전문 기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의 수립 및 금융, 세제, 입지, 인력 등 기능별 지원 시책을 추진합니다. 성장촉진과는 중견기업의 성장 저해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신성장 모델 수립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중견기업국 신설 이후 우선적으로 중견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1,300여 개의 중견기업을 2015년까지 3,000개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임하시면서 대·중견·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 도입된 성과공유제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정부가 2006년 상생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확산을 추진해왔으나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이 없었고, 기업의 관심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확산이 다소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성과공유제의 개념과 모델이 불명확해서 기업들은 일상적 협력 활동만 계속하면서 이를 성과공유제로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실적관리 시스템 등의 부재로 정부의 정책지원 수단과 연계가 곤란했고, 기업 CEO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관심도 부족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성과공유제의 본격 확산을 위해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14일, ‘성과공유제 확산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델 개발 및 보급,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R&D 등 인센티브 제공, 지경부-대기업 간 협약체결, 중견기업을 포함한 적용대상 확대 등입니다.

이 가운데 성과공유제 시행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제공하는 ‘성과공유확인제’가 지난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지경부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과 공공기관의 성과공유확인제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평가 우대,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정부조달·R&D, 해외동반 진출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5월에 지경부-대기업 간 성과공유제 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6월에는 실무 전문가와 학계가 모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성과공유 세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는 등 성과공유제가 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들도 동반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을 내놓고 실천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요.

공공기관은 대형 구매자이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동반성장을 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성과의 제고 측면에서도 공공기관이 동반성장을 실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지난 3월,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 성과공유제, 2~3차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 확산,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 중소기업 협력사 기술력 지원 등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들이 실정에 맞는 과제를 선택해 기관의 ‘간판정책’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생법에 따라 지경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평

가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 동반성장 추진 실적 평가 또한 기관별 간판정책 성과에 따라 변별력을 확대하는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향후 공공기관을 정점으로 대·중견·중소기업으로 동반성장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무역 1조 달러 수성에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올 한 해 수출 전망을 어떻게 보시지요.

2011년에는 선박,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금년은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이 지연되고,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대외여건 속에서 1분기 누계 무역수지가 수출 1,349억 달러(3.0% 상승), 수입 1,333억 달러(7.6% 상승)로 무역수지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전년 대비 흑자 규모도 대폭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U 등 주요국의 경제 회복 부진이 수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줬고, 선박 등 주요 품목의 수출 부진도 1분기 수출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로 대외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동차, 석유제품 등의 수출 증가세 유지 등으로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EU, 미국과의 FTA 효과, ASEAN 등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고려하면 무역 1조 달러에서 후퇴할 우려는 없을 겁니다.

다만, 최근 수출 환경과 고유가 상황을 감안하면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당초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은 있어요. 대외적 불안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2/4분기 수출입 동향 등을 고려해 연간 전망을 수정 검토할 생각입니다.

한미 FTA가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는 호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일 텐데요.

한미 FTA는 유럽의 재정위기 등 어려운 세계경제 속에서 무역 1조 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FTA 활용 역량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FTA 특혜관세 미활용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38%가 ‘이용방법을 모른다’라고 답했고, 14.1%가 ‘번거로워서’라는 답을 했어요. 기관 간 유사 정보 중복제공 등 체계적 지원체제 부재도 FTA 활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FTA 활용

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 중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특혜관세 이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해요. 사전적으로 생산품 품목분류, 원산지 판정 및 증명대행 등에 통상 건당 50만 원 이상이 소요되며, 원산지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도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직접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미 3월부터 16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국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센터 및 업종별 단체 전문인력이 해당 업체를 방문해 현장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FTA 활용 역량 배양을 위한 통합무역정보시스템 구축과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중심의 FTA 전문가·실무자 양성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FTA 정보 역량 강화를 위한 One-Click 기능의 통합무역정보시스템은 관세, 원산지표시, 규격, 기술표준, 인증, 환경규제 등을 손쉽게 취득 가능하도록 품목별(HS 6단위)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외에도 한미 FTA 성과 조기창출을 위해 자동차부품, 섬유, 생활소비재 등 수혜 분야의 수출확대 및 유망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FTA에서 파생되는 투자수수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 노력도 필요한데요, FTA를 계기로 한국을 글로벌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IR을 추진하고, 투자환경 개선 홍보를 강화해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국내 U턴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U턴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입지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국내 정착을 돕는 원스톱 콜서비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가 안정화를 위한 제5정유사의 석유제품시장 참가가 결정돼 앞으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지난 4월 19일 정부합동으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석유제품시장에 정유4사 이외에 신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유사의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은 거죠.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삼성토탈이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여해 오는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할 계획입니



홍석우 장관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다. 물량, 가격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정유사가 석유공사에 공급하는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 공급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입니다. 삼성토탈이 제5정유사로 참여함에 따라서 정유4사의 과점적 석유제품시장에 유효경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특히 알뜰주유소 공급물량의 안정성과 가격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알뜰주유소가 소비하는 휘발유가 월 3.8만 배럴 수준인데, 삼성토탈의 휘발유 생산량은 월 12.5만 배럴 규모거든요. 이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획기적 확대, 석유공사 내 석유제품유통본부 설치 등 석유유통시장에 대한 혁신적 기반 구축 등의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융합'이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인문융합창작소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중심의 혁신에서 인문·기술의 융합에 의한 창조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혁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First-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창조적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산업기술에 접목함으로써 창조적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문융합창작소'가 4월 25일 문을 열었습니다. 창작소는 대학, 기업 및 연구소 등 민간의 '소통·융합의

열린 공간으로써 기술과 인문간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창의적 융합 연구를 활성화하는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인문·기술 융합연구의 씨크탱크로서 혁신적 유망 기술·제품 개발을 위해 인문학적 상상력을 기술에 접목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술에 의한 수리적인 상상력 (mathematical imagination)과 인문에 의한 서술적(narrative) 상상력이 디자인에 의한 시각적(visual) 상상력을 통해 결합하게 되는 거죠.

인문학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미래예측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양성 지원, 융합을 저해하는 R&D 프로세스 개선 등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인력 양성에 있어 통합적 사고와 전문성을 보유한 파이플러스($\pi+$)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1개 영역의 전문화를 꾀하는 I형 인재에서 1개 영역 전문화에 다양한 영역을 섭렵하는 T형 인재로, 그리고 2개 이상의 영역을 통섭하는 π 형 인재로 인재상이 바뀌어왔다면 이제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이 만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pi+$ 형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전통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함께 한 홍석우 장관



인천의 한 전통시장을 방문한 홍석우 장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의 시행 초기 논란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대형마트, SSM 영업시간 제한은 지난 1월 지자체 조례로 제정됐는데, 대형마트에서는 영업자유와 형평성 위배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운 만큼 집행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원래 목적에 가장 가깝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영업시간 규제가 소비자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유통산업 종사자의 휴식권과 전통시장에는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국 지자체 228개 중 20% 수준인 42개 지자체에서만 조례가 시행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소비자에게 충분한 공지가 안 돼서 불편을 끼친 부분은 유통업체와 지자체에 휴업일 공지를 강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입니다. 정부도 시장 시설현대화 및 나들가게 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330개 시장에 1,606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나들가게 지원은 올해 누적 지원수를 1만 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에너지 위기시대, 해외 자원개발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원전 수출에 나서고 있고, 전망도 밝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원전은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원전을 수출한다는 것은 우리의 국격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는 거죠. 특히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에 불과합니다.

원전은 정치외교적으로도 수출국과 수입국간 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데, UAE 원전 수주 이후 UAE와 미개발 유전 본계약 체결하는 등 양국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국형 원전(APRI400) 2기의 수출금액만 1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UAE 원전 건설 프로젝트는 앞으로 2천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해 일자리 창출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UAE의 추가 발주 구상을 감안하면 2020년에는 6천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전은 건설 이후에도 운영, 유지, 보수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60년 가량 수익이 발생하는 첨단산업입니다.

물론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많은 국가가 전력수급 여건, 유가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당분간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이 없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위급 세일즈 외교를 통해 터키, 베트남, 핀란드 등 주요 수출 목표국을 대상으로 원전 수주를 추진하는 등 추가 원전 수주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중입니다.

평소 현장을 중시하고 소통을 강조하시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지경부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공무원 초년 시절부터 들어왔던 말인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취임 후 꾸준히 해왔던 노력 중 하나가 기업 및 현장에서의 소통 강화였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각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에서의 접점을 늘려온 것도 그 때문이죠.

그리고 업계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갖는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담당 부서의 검토결과 확인 후 제가 직접 답변서한을 적어 참석자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차관, 1급 실장 등 간부들

이 직접 지경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사업신청서를 작성해보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발굴해보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기업인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지만 서류 작성 정도는 정책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여겨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막상 기업인들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부터 어려워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코트라와 중소기업청에서 시작한 직원들과의 '이메일 소통'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경제와 문화, 사회문제는 물론 제 일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과 격의없는 대화가 가능해져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37주년을 맞았습니다. 장관님께서 중기청장 시절부터 연구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37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CEO들에게 조찬세미나를 통한 학습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인간개발연구원의 업적은 민간에서 이룩한 그 어떤 일보다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결같이 자리를 지켜온 장 회장님의 높은 사명감과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CEO는 물론 전국의 공무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 밝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전 국민들의 평생학습을 위해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는 글로벌 리더를 발굴 양성하는 일에 더욱 매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 홍석우 장관

1953년생으로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석사,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래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장, 홍보관리관, 무역투자정책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부산울산지방 및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장에 이어 중소기업청장, AT커니코리아 부회장, KOTRA 사장 등을 역임하며 산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미시적·거시적 안목을 길러왔다. 30년 넘게 지식경제부 업무를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11월 장관에 취임해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이끌고 있다.



현장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홍 장관의 기업방문



현장과 소통을 중요시하는 홍 장관의 기업방문



창원지역 수출기업과의 간담회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공감을 만들어 가는
2012 소통아카데미 1기 수료
대화와 소통기법,
인성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좌



- 1. 장만기 회장의 종강인사
- 2.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수강생들
- 3. 송석구 위원장의 개강인사
- 4. 1기 수료자 대표들과 함께

사회 구성원 간 활발한 소통과 공감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소통아카데미'가 2011년 시범사업에 이어 2012년 본 사업을 시작했다. 일반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3월 7일 개강해 총 3강좌로 진행된 '2012 소통아카데미 1기'는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서진규 희망연구소 소장, 신상훈 방송작가가 강사로 참여해 소통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소통으로 삶의 행복을 찾고, 유머를 통한 소통의 기술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소통아카데미는 시민들의 교양습득은 물론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송석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개강인사를 통해 "2011년 소통아카데미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통합과 소통 문화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소통아카데미의 다양한 강좌들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는 한편 수강생들이 먼저 소통리더로서 소통문화 확산에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장만기 본원 회장은 종강식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소통' 문제를 소통아카데미라는 교양교육을 통해 사회적으로 담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자체가 우리사회의 통합과 소통의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소통아카데미의 성과를 이야기했다.

3월 21일, 종강연과 함께 진행된 수료식에서 송 위원장은 최연장자(주승환, 73세), 최연소자(이정우, 22세), 직장인 대표(구연숙, 여), 주부 대표(정경희, 여) 각각 1명에게 수료생들을 대표해 수료증을 수여했다.

소통과 대화에 필요한 기본 인성을 함양해 사회통합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사회에 소통과 공감의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원이 사회통합위원회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조남철)의 후원으로 개설한 소통아카데미는 올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해 운영되며, 서울지역은 2기(4월 25일~5월 9일), 3기(6월 13일~6월 27일), 4기(9월 5일~9월 19일), 5기(10월 10일~10월 24일)까지 총 15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소통아카데미 전 강좌는 방송대 TV채널인 OUN을 통해 방영된다. 방송에서도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2012 소통아카데미 1기 강좌를 요약발췌해 소개한다.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dal2020@khdi.or.kr)

1회차

사회통합과 소통의 벽 이렇게 넘어서라

3월 7일(수)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사회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역설적이다. 신문, 방송, 인터넷, SNS 등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한국 사회에서는 소통의 부재가 문제되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

소통의 부재는 한 두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병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통해 문화가 형성되고, 소통의 건전성도 문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는 곧 문화의 문제이다.

그러나 소통과 문화가 병들었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는 없다. 문화와 소통의 건강과 성격도 구성원에 의해 얼마든지 회복되고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따져보고 토론해서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는 공동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소통의 부재, 진실과 신뢰로 회복해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정보, 특히 말에 대한 신뢰가 전반적으로 약해졌기 때문이다. 말이 신뢰를 잃은 이유 중 하나는 말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SNS, 광고, 연설, 강의, 강연, 설교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말이 쏟아져 나온다. 인플레가 생기면 통화 가치가 떨어지듯 말이 많아져 말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믿지 못하는 말을 통해 정보가 전달된다면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이 정직하고 신중하고 책임 있게 말한다면 진정한 소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오늘날 소통의 부재는 말이 없거나 적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말하는 경

우가 줄어든 데서 기인한다. 주어진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처한다면 말과 사실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재현되었을 때 사람들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소통은 진실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진정성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는 소통은 소통이 아니다. 우리사회 소통의 부재는 곧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매우 어리석은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올바른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대화다운 대화는 서로에게 새로운 생각을 자극하고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정리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물론 잘못 알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고치는 효과도 있다.

대화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상대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해주는 것이다. 상대를 가르치고 지시하고 설득하려는 태도로는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없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듣고,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그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은 타인의 권리와 인격,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결국 그 사회의 윤리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소통의 부재를 극복하려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정직하고 공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범하지 않아야 하고,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서로 신뢰만 할 수 있다면 소통이 원활해질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다.

2회차

세계와 소통하는 희망스토리

3월 14일(수) 서진규 희망연구소 소장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답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해답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뀐다. <시크릿>이라는 책에 '끌림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가 긍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고,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끌려온다는 것이다. 우주는 행동하는 자에게 보상한다.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매사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에 신나는 일만 일어날 것이다.

하루의 시간은 24시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희생하는 것이 자신의 건강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몸과 소통할 줄 모른다. 자기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물론 나중이라도 성공해서 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준다는 보장은 없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당장 '사랑한다', '감사하다' 말해보자.

나와의 소통이 변화를 만든다

삶이 힘들거나 일을 할 때 스스로에게 사명을 주고, 스스로와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소통이 힘이 되어주고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큰 꿈을 꾸되 그 꿈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주를 향해 꿈을 선포해야 한다. 그럼 우주가 도움을 준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선포를 하고 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 둘 수가 없다. 그렇게 하다보면 어느 날 꿈을 이루게 된다. 소통으로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표현하기 전에 내 의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 실력을 키워야 한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성이다. 아무리 실력이 좋고 성과가 좋아도 나를 배신할 것 같은 사람과는 누구도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인간성부터 가르치고 공부를 시켜야 한다.

그 다음이 성과와 실력이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해답, 어떤 해결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창의력, 상상력도 뛰어나야 한다.

내가 나를 지키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은 나의 아이들에게, 내 가족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불가능한 꿈일 뿐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런 선택이 없다. 또 우리 인간은 죽는다

는 사실에서도 아무런 선택이 없다. 우리 모두는 죽는다. 우리 인간은 이승에서 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한번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는 내가 결정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연습이 아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음 순간이 변한다. 내일이 변하고 미래가 변한다. 여러분이 변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변한다. 회사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한다.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한다. 이왕 태어난 삶 멋지고 보람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3회차

편(Fun)과 소통, 유머가 이긴다

3월 21일(수) 신상훈 방송작가 / 서울종합예술학교 교수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다. 그냥 웃으면 모든 것이 똥 뚫리고 소통이 된다. 고민하지 말고 '하하하' 웃어보자.

웃음이 소통과 직결된다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다. 특히 유머, 웃음은 건강과 직결된다. 아기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 어른은 기껏해야 15번을 웃는다. 진짜 웃음이 좋은 걸 모르기 때문이다.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으면 대부분 돈이라고 대답한다. 돈, 물론 중요하다. 그런데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다. 돈이 많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대학 동기 중에 입학도 꼴찌, 졸업도 꼴찌를 한 친구가 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아무 기술도 없이 미용실을 오픈해서 지금은 미용 재벌이 되었다. 비결은 바로 웃음이다. 항상 미소 짓고 손님들에게 웃음을 주니까 한 번 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그 친구는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 항상 웃으며 '맛있다'를 연발하니까 뭐라도 하나 서비스를 받는다. 그렇게 항상 웃다보니까 성공한 것이다. 상대를 웃겨라. 그럼 내 주머니가 달라질 것이다.

웃음과 유머만 있다면 뭐든 통한다

웃음은 창의성, 아이디어와도 연결된다. 창의성은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남들이 모르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웃음을 우습게만 보지 말고 나의 무기로 삼아서 건강에도 창의성에도 도움이 되고, 돈도 벌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웃다 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진짜 웃음이 좋은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웃음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기술이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그 기술만 있다면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어디 가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우리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막말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터지기 일보직전이라는 증거이다. 우리사회에 막말을 없애는 방법은 단순하다. '깔깔깔' 웃다보면 고민도 스트레스도 사라진다. 결국 우리사회에 웃음이 넘쳐나야 한다.

상대를 웃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접촉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접촉은 미소이다. 내가 먼저 미소 지으면 상대는 웃게 되어 있다. 웃음과 유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방법을 가위 바위 보에서 찾아보자.

첫째, 주먹이다. 주먹을 내는 것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있으면 상대는 웃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자신감 있게 바라봐야 한다. 누군가를 웃기려면 무조건 들이대자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둘째, 가위다. 가위는 뭔가를 자를 때 사용한다.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한다. 선택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일반인들이 하루에 선택하는 일이 70가지라고 한다. 반면 CEO들은 하루에 139가지의 선택을 한다. 빠른 선택을 하기 때문이다. 선택은 확실하게 하고 빨리 해야 한다. 화를 내는 것도 선택이다. 화를 참으면 화병이 될 뿐이다. 다만 웃으며 화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보자기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은 손을 펼 수 없다. 손을 펴서 할 수 있는 일은 악수,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하는 좋은 일들뿐이다. 손을 펴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는 웃게 되어 있다.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을 반대로 생각해보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오늘을 기점으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면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다. **김재민**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TPT 멘토대학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인간개발연구원은 이 시대의 리더들과 함께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갖추어진 조건이 아닌 온갖 역경을 이겨나가는 리더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진솔하게 담아내는 대화의 공간. 여러분들의 지혜나눔으로 건강한 가치들이 살아 숨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TPT 멘토대학은...

인생을 통해, 경영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하면 좋을까요? CEO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개발연구원이 보유한 명사특강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대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멘토대학은 강연과 멘토링의 나눔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지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TPT 멘토대학 참여는...

- CEO(창업자 / 전문경영인)
- 공직자 및 행정전문가
- 신문, 방송 등 언론인
- 총장, 교수 등 교육계 인사
- 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업인
- 트렌드, 마케팅 전문가
- PD, 영화감독, 광고인, 방송인 등 영상예술인
- 작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인
- 운동선수, 산악인, 스포츠 전문가
- 기타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TPT 멘토대학 나눔사업은...

아름다운 리더들의 나눔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강연나눔

기업 · 기관 강연나눔 - 강연기부사업을 펼쳐갈 모체를 만들어주세요.

연구원의 다양한 협력기관 중 필요한 곳에 강연해주시고, 강사비를 기부약정해주시면 지혜나눔사업의 인적구성과 재단형성의 모체로 사용되어집니다.

학교 강연나눔 - 다시 학생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진학과 취업을 뛰어넘는 인생선배로서의 조언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기부해주세요. 이미 전국 주요 지자체와 함께 중고교, 대학 등 순회강연을 개설해 미래의 리더를 키우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콘서트 강연나눔 - 위기를 창업의 기회로 만드는 마술사

풍부한 창업 노하우를 가진 분야별 CEO들의 시리즈 강의로 기업가 정신을 키웁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에게 맞는 창업 노하우를 찾아가는데 등대지기 역할을 합니다.

NGO 강연나눔 - 강연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NGO기관과의 강연나눔 특강 제후사업으로 리더들의 지혜를 나누는 강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강연 동영상서비스 - 온라인과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리더들의 아름다운 나눔문화

기부해주시는 강연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멘토링나눔

대학생 멘토링제도 - 네가 만약 해매일 때면... 내가 멘토가 되리!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CEO들이 대학생들의 멘토가 됩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에 대학생 멘티를 기수별로 운영합니다. CEO와 함께 명사특강도 듣고, 온오프라인에서 대화의 시간도 가지며 인생의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학생 멘티들은 기수별로 활동보고서를 통해 멘토링제도의 유익함을 알립니다.

청소년 멘토링&인성교육 - 미래의 인재, 청소년들의 인생에 등불을 밝힙니다.

학교 강연나눔을 통해 만난 전국 청소년들과 멘토링을 맺습니다. 영역별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공간나눔

기업의 회의공간을 멘토대학 장소로 기부해주세요

멘토대학은 아직 꿈을 펼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라 기부강연 때마다 장소의 제약이 있습니다. 기업의 CSR 차원에서 회의공간을 후원해주시면 멘토대학은 CSR을 실천하는 착한기업을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홍보해드립니다. 추후 전용교육관 및 CEO의 서재를 운영하여 모든 사업의 중심점이 되고 지혜나눔의 랜드마크로 키우겠습니다.

멘토플라워나눔

회원사가 멘토플라워를 이용하면 수익의 10%가 멘토대학에 기부됩니다.

평소 이용하시는 꽃배달 서비스를 멘토플라워를 통해 주문해보세요. 스마트한 주문부터 도착한 모든 꽃을 도착 현장 사진으로 확인해주는 화훼유통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착한 꽃 '플라워팀'과의 제휴로 기업에도 도움을 드리는 멘토플라워, 더불어 멘토대학의 재정을 돕는 일거양득의 나눔활동입니다.

나누는 사람

성명(단체명)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회사명 _____	부서/직위 _____
직장전화 _____	직장팩스 _____
핸드폰 _____	주소 _____
이메일 _____	

20 년 월 일
성명 : _____ 서명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인간개발연구원
T. 02-2203-3500 F. 02-2203-1974 E-mail : sy7079@naver.com

후원 및 기부나눔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리더들,
나눔회원이 되어주세요.

강연나눔 회원

2012년 1회 2회 3회의 기타(회)의 강연을 기부하겠습니다. *강연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합니다.

멘토링나눔 회원

2명 3명 4명 기타(명)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하는 대학생 멘티들의 멘토로 활동합니다.

공간나눔 회원

2012년 1회 2회 3회의 기타(회)의 강연을 기부하겠습니다.

교육장 위치 : _____

담당자 연락처 : _____

*멘토대학의 꿈을 펼칠 공간을 기부합니다.

벽돌나눔 회원

1구좌 100만 원 2구좌 200만 원 3구좌 300만 원 기타
(구좌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전용교육관 설립을 위한 기부입니다.

멘토플라워나눔 회원

_____에서는 멘토플라워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할 것이며, 이용에 따른 적립금 10%를 멘토대학에 후원하겠습니다.

회사명 : _____

담당자 연락처 : _____

지정기부나눔 회원

CMS 자동이체 신청

매월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기타 _____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자동이체 지정일

매월 5일 15일 25일

은행명 : _____

계좌번호 : _____

예금주 : _____

지정기부 신청

후원계좌로 20 년 월 일까지 _____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입금처 : 국민은행 381-01-0050-244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기부금은 멘토대학 운영을 위한 소중함 마중물로 사용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사람 유홍준의 문화유산 이야기와 보통사람 송승환의 새로운 난타를 위한 도전과 꿈 이야기

위스타트(We Start)운동본부와 인간개발연구원이 3월 6일(화)과 8일(목) 밤, 유홍준 명지대 교수와 송승환 PMC프로덕션 대표를 모시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부강연인 '위(We)대한 토크'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다. 지난해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와 개그우먼 조혜련의 강연으로 출발한 '위(We)대한 토크'는 명사들의 강연기부와 참가자들의 수강료 기부를 통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유홍준 교수의 '미래를 향한 문화기행'



유홍준 교수는 다양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100년 뒤, 후손들에게 물려줄 보물 1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보물'은 나라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국보와 보물에 국한한 것이 아닌 유 교수가 명작이라 생각하는 소중한 우리 유물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기념비적인 유물을 중심으로 소개하며, 살아 숨 쉬는 생명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으로 문화재를 보는 유 교수만의 독특하고도 인간적인 감상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그 보물들에 숨겨진 흥미로운 뒷이야기와 보물 발견법을 듣고 나니 그동안 보던 청자와 백자와는 정말 달라 보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큰 성장을 했지만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문화를 보는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보물이 있어도 보물인지를 모르는 눈을 가졌다면 무슨 소용인가? 문화전문가로서 답답한 현실을 토로한 그는 "정부는 어려워지면 항상 문화예산을 거둬들이는데, 문화적 품격은 오랜 기간 쌓여가는 것"임을 지적하며, 리더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강연은 구 서울역 건물인 '문화역서울 284'가 오픈 전임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기부해 역사적인 장소에서 문화재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난타 제작자 송승환 대표의 '세상을 뒤흔든 난타'



송승환 대표는 강연에서 '난타'로 세계를 흥분시켰던 것처럼 청중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끊임없는 창의력으로 '난타'라는 세계적인 공연브랜드를 탄생시킨 경험을 밝혀 꿈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비전을 선사했다.

아역배우로 성장, 그 시절에는 지금 최고 주가를 달리는 송승환을 뛰어넘는 최고의 연기자였지만 리더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송 대표에게는 만족스럽지 않는 세상이었다. 결국 연극제작자가 되어 세계를 무대로 한 무언가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15년. '난타'는 지난 1월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하며 한국 공연 사상 최다 관객 동원을 기록 중이다. 관객 중 외국인 비중이 80%에 이르는 공연계 1등 관광상품으로 서울 흥대, 명동, 정동, 제주 등 4개 전용관에서 상설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을 만들고 싶지만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어도 학원갈 시간이 부족해 공연을 보러 오지 않아서 많은 실패도 겪었다며, 한 국교육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문화천재가 나오려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만큼 문화에 투자하는 열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날 공연에 앞서 문화예술인들이 공연으로 나눔을 실천해 나눔의 뜻을 함께 했다. 국내의 오페라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박소현의 공연과 '3,000원 송' 등 다양한 광고음악으로 널리 알려진 아카펠라 쇼그룹 '다이아'의 공연이 흥을 돋우었다. 한편 봄온아카데미의 후원으로 정찬우, 민경수 아나운서가 사회자로서 재능을 기부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만 원의 기부와 도서관매수익금이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지원되었으며, 이러한 나눔의 물결이 널리 퍼져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자본주의가 빛을 발하기를 바라본다. **www.khdi.or.kr**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2012 CEO 미디어 스피치 9기 모집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CEO 여러분,
긍정적인 언어와 경어, 거짓 없고 겸손한 언어,
배려하는 언어로 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로
회사의 꿈과 열정을 함께 공유하는 스피치.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스피치 교육기관 봄온과 함께 시작하세요.

◆ 교육일시

2012년 5월 17일(목)-6월 14일(목)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9시 30분(1개월간 총 5회 수업)

◆ 모일일시

2012년 4월 16일(월)-5월 11일(금)

◆ 교육장소

봄온 강남 스피치 아카데미
2호선/분당선 강남역 4번 출구, 경원빌딩 4층(1층 엔젤리너스)
교육대상 : 기업의 CEO 및 임원, 그리고 전문직업인 10분을
모십니다.

◆ 교육특징

아나운서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고품격 스피치교육
다양한 스피치 상황 대처 능력 강화
매 강의 시 동영상 녹화 실습과 모니터링
매회차 개인별 동영상 CD 제작

◆ 교육특전

CEO MS 클럽 커뮤니티 활동 지원(cafe.naver.com/ceospeech)

◆ 교육비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180만 원 / 예비회원 200만 원 *부과세 면제

◆ 선택사항

아나운서와 1:1 개인코칭을 원하실 경우 추가 교육
가능합니다.
품격높은 방송언어를 구사하는 아나운서 직접 교육
주제별/상황별/수준별 스피치대본 작성에서부터
카메라 실습까지 원하시는 대로 맞춤형 코칭
교육회차/교육시간 자유(시간당 30만 원 1:1 개인단독 진행)

◆ 문의처

인간개발연구원 민선아 차장 T.02-445-1948

교육강사진



성연미
봄온스피치아카데미 대표



원종배
KBS 아나운서



권영찬
개그맨



김현주
광운대학교 교수



[회원 소식]

■ 전순표 Operation Smile Korea 이사장 / (주)세

스코 회장은 지난 2월 18-25일까지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모델병원에서 언청이 어린이와 손가락 장애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수술을 시행하는 봉사 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Operation Smile 본부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의료단 27명이 참여했으며, 45명의 네팔 어린이들이 수술을 통해 새 희망을 찾았다.



■ 유혜선 SM컨설팅 대표는 KBS 꿈의 기업 입사

하기 '스카우트' 방송에 출연해 지난 3월 14일 (수)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630여 개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각 학교에 맞는 주제를 선정해 경합을 벌이고, 최종 1인에게 장학금 혜택 및 희망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에트로(ETRO)의 공식수입

원인 ㈜듀오사장 이충희는 3월 15일 하얏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한국 론칭 20주년 기념 자선 쇼를 개최하였다.



■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3월 16일 금융연

구원의 주주인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서면 결의를 통해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에 취임하였다.



■ 석동연 외교통상부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는

지난 3월 27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차관급)으로 임명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교과서, 독도, 동해표기 등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석 사무총장은 올바른 역사인식 하에 중국, 일본과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 일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 최재형장학회(회장 김창송)는 지난 4월 5일,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

에서 대륙의 영혼 최재형 선생 순국 및 4월 참변 92주기 추모식 행사를 가졌다.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하얼빈 의거를 배후에서 지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에 선임되는 등 연해주, 시베리아 항일독립운동의 대부였다. 최재형장학회는 최근까지 우리에게 철저히 잊혀진 인물로 남아있던 선생의 유지를 계승하고, 고려인 동포 사회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려인 청년들의 학자금 지원 및 한국 청년들에게 대륙의 기상을 심어주고자 장학회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 벤처 1세대 기업인인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갖고 도전하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비트컴퓨터 본사에서 조현정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고교생 15명에게 증서를 수여하였다.



■ 박대성 화백(제1473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은 4월 1-29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에서 해동서성 김생 탄생 1300주년 특별전(2부)으로 <문도(文道) - 김생과 권창륜·박대성의 1300년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1부 전시로 열렸던 <필신(筆神) - 김생에서 추사까지(2011.12.23-2012.3.4)>에 이은 두 번째 전시로 관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



■ 서울특별시사회는 제66차 서울특별시사회

정기총회에서 제32대 회장으로 임수홍 회장을 선출하고, 지난 4월 2일 취임식을 가졌다.



■ 봄은아카데미(대표 성연미)는 지난 4월 6일, 전

문 아나운서 교육과 CEO 스피치 교육을 모두로 삼은 강남 분원을 오픈하고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현직 아나운서 및 아카데미 수료생, 관계자 등이 참석해 봄은아카데미의 강남시대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롯데호텔(대표이사 송용덕)**은 지난 4월 12일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컨벤션복합센터 내에 프리미엄 비즈니스호텔인 '롯데시티호텔 대전'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롯데시티호텔 대전은 전체 사업비 7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4년 3월 준공이 목표이며, 지상 18층, 지하 2층 규모로 312개 객실과 피트니스 클럽, 각종 비즈니스 관련 시설로 이뤄진 특2급 호텔로 건립될 예정이다.



■ **우리자산운용(대표이사 차문헌)**은 지난 4월 12일 본사에서 홍콩의 대안투자운용사인 MCP자산운용사와 재간접 헤지펀드 운용 및 리스크 관리 노하우와 관련한 업무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



■ **조인스HR(대표이사 이재산·양병만)**은 지난 4월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벤처센터에서 '2012 위기 극복을 위한 HR과제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노무관리 전략과 위기 속 인재관리의 성공사례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 **김중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보유 주식 중 보통주 12만 7410주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에 기부했다. 기부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 여 원에 달한다. 김 회장의 주식 기부는 1996년 한미글로벌 설립 당시 공표한 3대 경영방침을 실현하는 차원으로, 당시 김 회장은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실천, 건설산업의 선진화, 일하기 좋은 일터를 공표한 바 있다.



■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승마의 대중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전 국민 말타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전 국민 말타기 운동'은 지난 4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으며, 말산업 포털사이트(www.horsepia.com)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 참가자들은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의 승마장과 희망 강습 프로그램을 선택해 말타기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제2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경제 5단체 및 정부와 협의를 거쳐 4월 24일 추대 절차를 거친 유 신임 위원장은 4월 30일 열린 15차 동반성장위 본회의에서 정식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유 신임 위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및 부총장 등을 지냈으며, 포스코 이사회 의장과 중기중앙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해 대중소기업계에서 두루 경험을 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국제적 현안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한 공로로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탁월한 국제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매년 외교관, 군인, 기업가, 인도주의, 예술 등 5개 분야에 걸쳐 지도자상을 수여하고 있다.



■ **박청수 원로교수 원로교무가** 지난 4월 인도 헌법의 아버지인 Bodhisatva Dr Ambedkar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Nagpur(인도)의 '2012년 Dr Ambedkar International Award'를 수상했다. 박 원로교무의 이번 수상은 세계 55개 국가를 방문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을 짓는 등 자신의 일생을 포교에 헌신해온 점을 높이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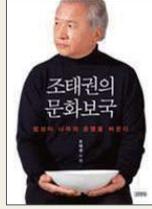
■ **최종태 포스코 사장은 포스코경영연구소로** 자리를 옮겨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포스코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조직의 내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에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한다는 방침으로 전문인력을 영입하였다.



■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은 4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학교 상문체육관에서 제9회 전국삼보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선발된 선수들은 내년 러시아 자치공화국 타타르스탄 수도 카잔에서 개최되는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에 한국을 대표해 출전하게 된다.



■ '한식세계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조태권 광주요 회장**이 <조태권의 문화보국>(김영새)이라는 첫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조 회장은 우리가 동경해왔던 선진국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조건으로 강한 문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아름답고 이야기도 풍부한 우리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책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 '동기부여' 및 '프레젠테이션' 전문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미성 엔트리 대표**는 최근 <백전불패 프레젠테이션>(미르북스)을 출간했다. 김 대표는 책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탁월한 비책을 세워야 하듯이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려면 남다른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주식회사 부천	이시원 사장	5월 1일
부원광학(주)	박춘봉 회장	5월 1일
(주)한국야쿠르트	양기락 대표이사	5월 10일
삼익THK(주)	심갑보 부회장	5월 10일
삼이그룹(주)	김석희 회장	5월 13일
(주)우진	이성범 회장	5월 13일
ESODO	김진희 대표	5월 15일
(주)홍진플러스	추민수 대표이사	5월 15일
신원헬트(주)	이용국 회장	5월 30일
(주)성한트랜스텍	박이락 대표이사 사장	6월 1일
(주)파로스 이앤아이	김서기 대표이사 사장	6월 1일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전상백 대표이사 회장	6월 1일
동남갈포공업(주)	서병식 회장	6월 5일
우리BM	곽창선 회장	6월 7일
대성MDI(주)	김영돈 부사장	6월 25일

[신규회원]

■ 최갑홍 한국전자산업협회 부회장(법인회원)

한국전자산업협회는 '전자산업의 단일 산업군 인식 및 전자산업의 국가 경쟁력 확보' 라는 목적 아래 설립되었다. 현재 소형 이차전지 분야 1위를 달성, 명실상부한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최갑홍 부회장은 지난 1671회 경영자연구회에 한국표준협회 회장으로 강연에 나선 바 있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20-17 • 전화번호 : 02-3461-9400
- 홈페이지 : <http://www.battery.or.kr>

■ 어윤대 KB금융그룹 회장(법인회원)

KB금융그룹은 KB금융지주 등 9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금융그룹 중에서 가장 늦게 종합그룹으로 설립했으나 금융그룹 종합 1위를 달리고 있다. 어윤대 회장은 1347회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한 바 있으며, 현재는 부가가치가 큰 금융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에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 전화번호 : 02-2073-7643
- 홈페이지 : <http://www.kbfng.com>

■ 강인수 인천외국어고등학교 교장(개인회원)

인천외국어고등학교는 인천의 유일한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로서 석박사로 구성된 교사진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하여 우수한 영재들을 양성하고 있다. 2010학년 수능성적 전국 58위, 인천 지역 내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강인수 교장은 2011년 한국관광공사사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 전화번호 : 032-511-3505
- 추천인 : 김덕희 인간개발연구원 상임이사

■ 니나 안 미국 커닝햄그룹 부사장(법인회원)

니나 안 부사장은 세계적인 파크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미국 커닝햄그룹에서 테마파크와 건축·리조트 디자이너로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롯데월드와 에버랜드 등 유명 테마파크를 성공적으로 디자인한 특별한 경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테마파크 디자이너'라고 부른다. 또한 니나 안 부사장은 1736회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을 한 바 있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1 아셈타워 #3055
- 전화번호 : 02-6001-3077

[소모임 소식]

■ 화목회(회장 황석희/총무

임종렬)는 지난 3월 13일, 세계적 항공사진 작가 안 아르투스 베르트랑 특별 전 '하늘에서 본 지구' 사진전을 관람하는 것으로 모임을 대체한 가운데 아름다운 봄맞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관람료는 임종렬 화백이 스폰했다.



■ **인목회(회장 차진영/총무 박이락)**는 새 봄과 함께 시작하는 3월 모임을 23일, 대장금에서 가졌다.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

클럽(회장 박춘봉 / 총무 정지환) 4월 모임은 지난 9일, 최근 <일생에 한 권 책을 써라>라는 저서를 출간한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를 모시고 누구나 쉽게 글을 쓰고 책을 쓰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주제로 '양병무의 행복한 글쓰기 특강'을 진행했다. 에세이 클럽 5월 정기모임은 14일 문학의집-서울에서 '손량성의 수필쓰기' 수업으로 진행된다.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이윤수 / 고지석)**은 4월 제297차 모임을 30일 코리아나화장박물관 '스페이스 C'에서 열고,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 **다락회(회장 정태익/총무 이종원)** 5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일시: 2012년 5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강남역 신분당선 지하 3층 갤러리카페 G-아르체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 (H.P. 010-5306-8587)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김복중 세무법인 천일세무사 대표세무사**의 차남 현재군의 결혼식이 지난 3월 31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일시: 2012년 3월 31일(토) 낮 12시 30분
- 장소: 서울로얄호텔 2층(로얄볼룸)
- 전화번호: 02-2279-1357

[사무실 이전]

■ **김영덕 ㈜유셈 회장**은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5층 1503호
- 전화번호: 02-425-3131

■ **성자은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상무**는 아래와 같이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매직킹덤빌딩 9층
- 전화번호: 02-2088-0928

[연구원 소식]

■ 송남영 소프라노의 음악선물

매주 목요일 개최되고 있는 인간개발경영자 연구회의 오프닝 공연으로 송남영 소프라노가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다. 송남영 소프라노는 숙명여대 성악과에 재학 중이며, 뮤지컬 '그리스', 전주 소리축제 및 대중상영화제 축하공연 등 다수의 무대에 출연한 바 있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도서 선물

매주 목요일 개최되고 있는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위해 회원 및 관계사에서 도서를 협찬해주고 있다. 협찬에 응해주시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이사 「월간지 맘대로 키워라」
- 자음과 모음 도서 10권 「정여울의 소설 읽는 시간, 「지하세계 아이들, 「시간을 파는 상점, 「41」外

■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공식후원 기관 참여**

본원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를 주제로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공식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기업을 위한 세션 운영 및 한중일 대표기업, 정치 사회 리더들의 네트워크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포럼은 김항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총망라된 강사진으로 21개국에서 134명이 참여하며, 전체 인원만 1,800명 규모의 초대형 포럼으로 국가 차원에서 한국의 다보스포럼으로 키우고 있는 글로벌포럼이다. 참가문의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시 : 2012년 5월 31일(목) ~ 6월 2일(토)
- 장소 : 해비치호텔&리조트 제주
- 대주제 : 새로운 트렌드와 아시아의 미래
- 문의 : 장소영 실장 070-8670-8435

■ **한러친선협회, 러시아 고등경제대 방한단 환영 만찬 개최**

한러친선협회(이사장 장만기 / 회장 손경식)는 지난 3월 21일 롯데호텔에서 러시아 고등경제대 방한단을 환영하는 만찬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 이세웅 서울 사이버대 총장, 신박제 (주)NPX반도체 회장, 김상열 OCI 부회장,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아로슬라프 쿠즈미노프 러시아 고등경제대학 총장을 비롯해 Olga Moshkova 국제협력국장, Boris Kuznetsov 경제학과 교수, Mikhail BONDARENKO 러시아 무역 대표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한러 양국간 우호증진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활발한 교류 확대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 **2012본원 회원 춘계 친선골프대회 성료**

생동하는 봄을 맞아 회원간 푸른 그린 위에서 운동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2012 춘계 인간개발연구원·인경희 친선골프대회가 지난 4월 27일 남촌CC에서 개최되었다. 25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대회는 남녀를 구분해 열렸으며, 대회 결과 박이락 (주)성한트랜스텍 사장이 우승을, 강임선 고지석 회장 배우자가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지석 세무법인 내일 회장이 롱기스트상을,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가 니어리스트상을, 이종원 갤러리 G-Arche 대표가 버디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해 협찬 경품을 받는 유쾌하고 즐거운 친선 대회로 치러졌다. 이날 대회가 열린 남촌CC는 업다운이 부드럽고 페어웨이 폭이 넓으며 전 홀이 티잉 그라운드에서 그린에 보여 편안함 속에서도 난이도 있는 국제 규격의 드라마틱한 코스로 유명한 곳이다. 한편 이번 춘계 친선골프대회를 위해 이용국 인경희 회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경품을 협찬해주셔서 대회가 더욱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었다. 협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풍성한 준비로 가을 추계 골프대회를 기약해본다.



협찬과 스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용국 (주)신원헬트 회장 :** 오찬 스폰 & 전체 기념품 (골프용품세트) 흥승국
- 에버그린MST(주) 대표 :** 전체 기념품(골프용 타올), 남녀 손목시계
- 이충희 (주)듀오 사장 :** 듀오 화장품 4세트
- 김학수 (주)동서식품 감사 :** 카누 커피 4세트
- 김석문 신일팜글라스 사장 :** 도르만스 커피 5세트
- 김국중 남촌레저개발(주) 대표 :** 골프공 세트
- 이종원 갤러리 G-Arche 대표 :** 그림 작품 한 점
- 유영만 (주)웰텍코리아 대표 :** 차량용품 '피카피카' 2점
- 김혜중 프로매치코리아 대표 :** 발렌타인챔피언십 입장권 5매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만남

인간개발연구원 멤버십은 건강한 습관,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서비스 안내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I 웹진)
- KHDI 라이브러리(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회원커뮤니티 활동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1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골프클럽(인경회), Young Ceo Forum, 차이나클럽,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유료 참석
- 국·내외 시찰 Program
- 회원친선행사(찾아가는 CEO교실, 회원사방문, 송년파티 외)
- 정기 간행물 제공
- 기업 교육컨설팅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심사 ▶ 연회비납부 ▶ 회원활동

서비스 구분	서비스 항목	특별 할인	법인 회원	세미나 회원	개인 회원	오디오 회원	온라인 평생회원	후원/나눔 회원
오프라인	회원혜택 적용 인원수	10인	5인	1인	1인	1인	1인	후원, 강연, 재능 기부 시 정회원 예우 ※본 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매주 목요일 개최)	면제/2인	면제/1인	면제/1인	회원가	비회원가	비회원가	
	회원 커뮤니티 가입자격	○	○	○	○			
	회원친선행사 (무료, 유료)	○	○	○	○			
	기업소식 및 동정 홍보 (매거진, 이메일, 팩스, 유인물배포)	○	○	○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	○	○			
	국내외 산업시찰 참가비 할인	○	○	○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료, 유료)	○	○	○	○			
	조찬세미나 강연 CD 매주 발송 정기 간행물 및 도서제공	5개	3개	1개	1개	1개 (도서제외)	별도구매	
교육컨설팅(명사섭외, 연수프로그램기획 등)	○	○	○	○				
온라인	KHDI 라이브러리 아이디 부여(동영상, 녹취록 제공)	○	○	○	○		○	
	강연 후기 이메일 서비스	○	○	○	○	○	○	
회비	연회비/온라인 평생회원은 1회 납부	650만 원	390만 원	290만 원	1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2-910003-99904 예금주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문의 : 경영자교육팀 T. 02-445-1948



전국에서 이어지는 평생학습 열기, 4월 총선 이후 활기 띠어

〈교육컨설팅 소식〉



계절의 여왕이라 일컬어지는 5월,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이미 그 열기가 고조되어있다. 2012년 5월

현재 경주시, 상주시, 울산시를 비롯하여 함안군, 무안군, 양양군과 서울 강서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등 50여 개 기관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열을 마치고 한껏 달아오른 교육 열기를 내뿜고 있다.

지난 3월 7일 본원의 회원이기도 한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경주시 화백포럼에서 새로운 경주의 미래를 모색하는 특강을 진행했고, 13일 울진군에서 서울대 의과대학의 박재갑 교수가 금연을 통한 건강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3월 14일 영월군에서는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브랜드파워를 주제로 첫 강연의 포문을 열었고, 16일 정읍시에서는 행복멘토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을 모시고 참행복에 관한 문답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3월 27일 울산시에서는 스마트시대의 스마트패러다임에 대해 표현명 KT 사장이 강연에 나섰고, 구미시에서는 이시형 세로토닌 문화원 이사장이 '행복한 독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3월 29일 목포시에서는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에 대해 강연에 나섰으며, 4월 18일 평창에서는 장태평 한국마사회 회장이 '생명산업의 르네상스'라는 주제로 직원교육을 진행했다. 농번기를 앞둔 청송군에서는 지난 4월 19일, 22대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김재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미래변화를 대비한 우리 농업의 현실과 생존법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거창문화원에서는 이동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모시고 FTA에 대비하기 위한 농촌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어지고 있는 교육은 지난 4월 총선을 기점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교육 요청과 진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평생학습조직 구축으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기업·기관 정기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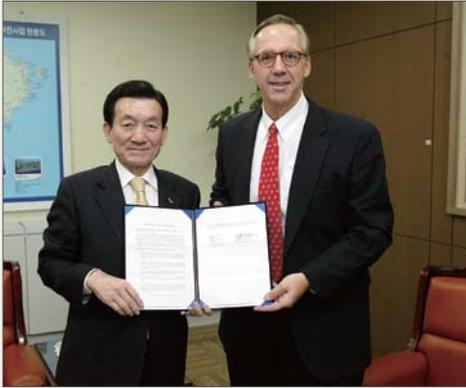


'평생학습조직 구축을 통한 조직발전 기여'를 목표로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교육사업이 3-4월 봄을 맞아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포스코에서는 김미성 엔트리 대표가 직원특강을, 대웅제약 경남지역본부에는 이영권 세계화학전략연구소장이 '멋진 인생을 위한 성공시스템'에 대해서, 농협은행에서는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가 '인재혁명'에 대해서, 한진해운에서는 영어MC 및 방송인으로 유명한 박현영 지니뱅크 대표가 3-4월 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특강을 각각 진행했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JDC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가 3월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대학에서 일제히 개강해 강좌를 시작했다. '제주시 글로벌아카데미'에는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 최종열 탐험가, 송희연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대표 등이 강연에 나섰으며, '서귀포 글로벌아카데미'에는 유희성 창의전략연구소 대표가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부모의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학생 글로벌아카데미'에는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의 한국홍보이야기, 유명대남서울대 교수의 선순환 리더십, 전옥표 워닝경영연구소 대표의 이기는 습관에 관한 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와 함께 하고 있는 '2012 소통아카데미 1기'가 3월 7일 개강해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서진규 희망연구소 소장, 신상훈 방송작가를 모시고 소통의 의미와 함께 다양한 소통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JDC, 美 명문사학 '더 헨스쿨 오브 프린스턴'과 설립추진 양해각서 체결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변정
일 JDC는 지
난 4월 4일 미
국의 명문 사
립학교인 '더
헨스쿨 오브
프린스턴'과
영어교육도

시 내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1914년 설립된 '더 헨스쿨 오브 프린스턴'은 6학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남녀공학의 대학진학 예비학교로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 위치한 미국 상 위권의 사립학교다. 제주 진출을 위한 사전단계로 국제학교의 설립 및 운영방안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월 변정 일 이사장의 미국 명문 사립학교 방문 유치활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JDC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국 학교는 4개 학교로 앞으로 2-3개의 학교가 양해각서 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 강서구, LG융합센터 유치 '미래 성장동력' 마련



서울 강서구(구청
장 노현승)는 LG가
추진하는 R&D 센
터의 유치를 성공
시켰다. LG R&D 센
터는 4조 원 규모로,

대규모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D 센터 유치로 그간 서울의 변두리로 인식됐던 강서구는 상권 중심 지로 부상할 수 있게 됐고, 서울 서남권의 균형발전이라는 기쁨도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 가평군, 장애인복지관 개관 본격운영

경기도 가평군(군수 권한대행 배수용)이 장애인복지관 개관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관 1층에는 상담실, 직업 훈련실, 가족목욕실, 작업활동실 등이 마련돼 있고, 2층은 물리치료실, 체력단련실, 직업



치료실, 미술치료실, 회의실, 교육실 등이 위치해 복지 증진과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양양군, 38선 마을 공공미술마을로 재탄생



강원도 양양군군수 정상철이 38선의 역사와 6.25전쟁 관련 자료를 전시하기 위한 38선 미니 주제 체험관을 조성하고 이와 더불어 현북면 잔교리 마

을 지역을 공공미술마을로 재탄생 시킨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콘텐츠 전시를 통해 38선 분단의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이해를 돕고, 38선 탐방로 홍보 및 정보제공을 위해 미니 주제 체험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상주시·고령군, 레저스포츠시설 사업대상지 선정



경북 상주시시장 성백영과 고령군(군수 박용환)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올레레저스 포츠시설 사업 대

상지로 선정돼 사업비 5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사벌면 경천대 관광단지 안에 서바이벌 가상전투를 주제로 한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고령군은 다산면 일대에 보트선착장 등 수상레저 계류시설이 포함된 '다산 레포츠 파크'를 조성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19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선자, 새로운 비전으로 시대의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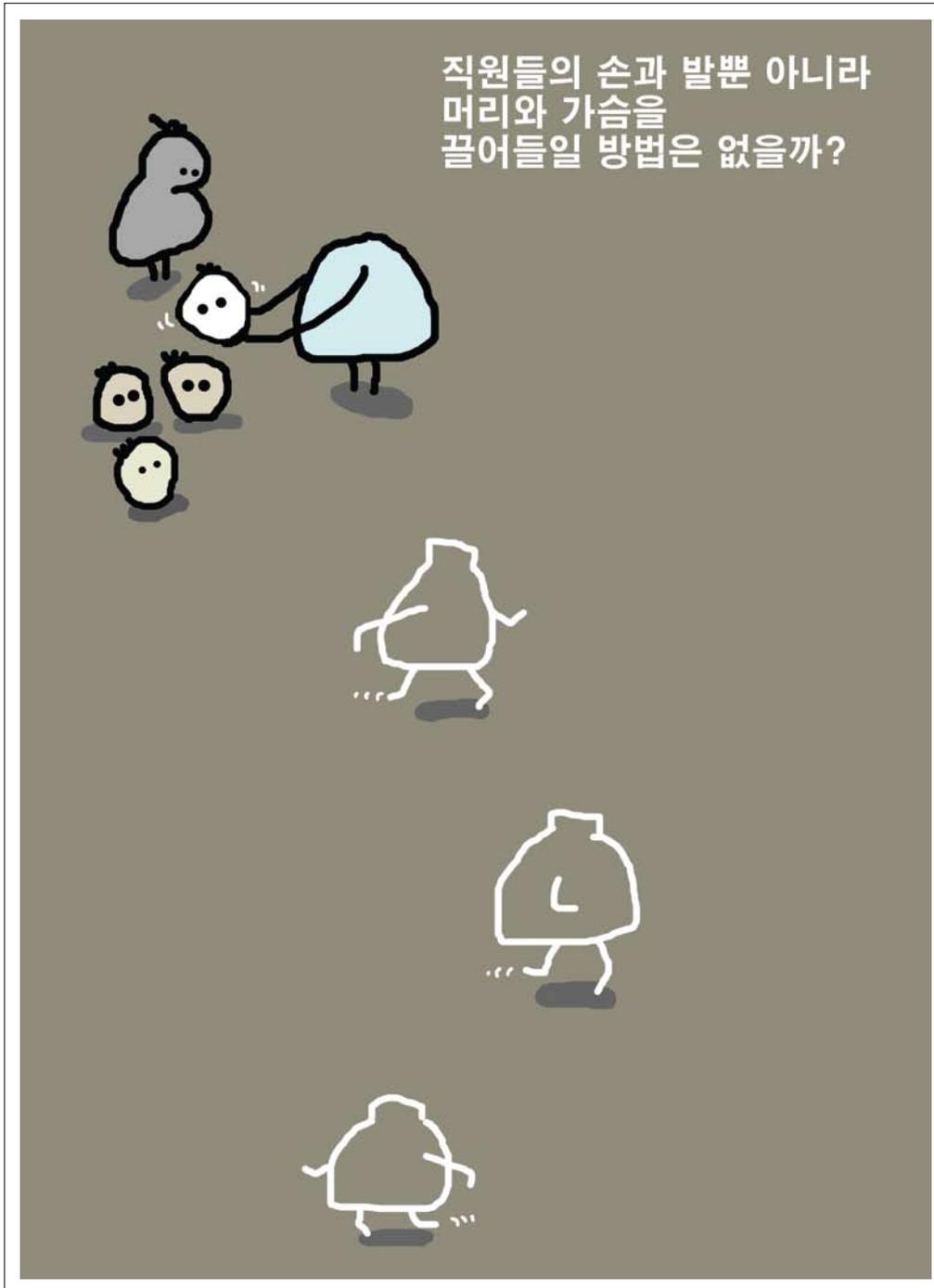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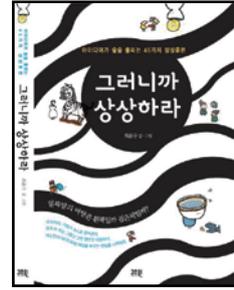
지난 4월 11일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진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총 300명의 새로운 지도자가 19대 국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당선자 중에는 연구원 37년 역사를 써오게 가운데 회원으로서, 조찬세미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아카데미 특강 강사로, 그리고 기타 연구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연구원 발전을 위한 조력자로서 함께 힘을 더해온 많은 분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19대 총선 당선자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자들의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앞으로 지역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써 흠어진 민심을 하나로 결집하고, 민족과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국민화합과 경제회복,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성명 가나다순

성명	소속	지역구
강창일	민주통합당	제주 제주시갑
김광림	새누리당	경북 안동시
김상희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시 소사구
김성곤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시갑
김승남	민주통합당	전남 고흥군 보성군
김영환	민주통합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를
김용익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김우남	민주통합당	제주 제주시을
김장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재윤	민주통합당	제주 서귀포시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 강남구를
김한길	민주통합당	서울 광진구갑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노회찬	민주통합당	서울 노원구병
도종환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문대성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
문화상	민주통합당	경기 의정부시갑
민병두	민주통합당	서울 동대문구를
박범계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를
박병석	민주통합당	대전 서구갑
박상은	새누리당	인천 중구 동구 옹진군
박영선	새누리당	서울 구로구를
박주선	무소속	광주 동구
백군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설훈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시 원미구를
성완종	자유선진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손인춘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광호	새누리당	충북 제천시 단양군
심상정	통합진보당	경기 고양시 덕양구갑
안덕수	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을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 동구

원혜영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시 오정구
유승희	민주통합당	서울 성북구갑
유인태	민주통합당	서울 도봉구를
유정복	새누리당	경기 김포시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 충주시
이낙연	민주통합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
이만우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목희	새누리당	서울 금천구
이미경	민주통합당	서울 은평구갑
이병석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북구
이용섭	민주통합당	광주 광산구를
이인영	민주통합당	서울 구로구갑
이인제	자유선진당	충남 논산시·계룡시 금산군
이지스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주영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이한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이해찬	민주통합당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인재근	민주통합당	서울 도봉구갑
정두언	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를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를
정세균	민주통합당	서울 종로구
정우택	새누리당	충북 청주시 상당구
정의화	새누리당	부산 중구 동구
정희수	새누리당	경북 영천시
조명철	새누리당	비례대표
주승용	민주통합당	전남 여수시를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를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최재천	민주통합당	서울 성동구갑
추미애	민주통합당	서울 광진구를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황주홍	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군

최윤규 <그러니까 상상하라> 중에서...



2012 JEJU CEO SUMMER FORUM

세상을 움직이는 발견,
융합의 창으로 다시 보다

- 일정
2012년 7월 29일(일)~8월 1일(수) 3박 4일
- 장소
제주 롯데호텔
- 주최
인간개발연구원 /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이신 CEO 여러분,
창조적 영감과 열정으로 미래를 지휘할 CEO 여러분들을
최고의 지혜여행, 2012 제주 섬머포럼에 가족과 함께 모십니다.

2012년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합리적 인간'을 가정하던 주류 경제학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대신에 심리학, 생물학 등을 접목시킨 행동 경제학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이 무너지면 자유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에도 변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국내 기업들은 '세상은 넓다'라는 인식하에 글로벌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기업들의 경영 전략의 주요 화두는 '융·복합'입니다. 이에 이번 섬머포럼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를 맞아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차별화와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창의, 혁신, 개혁, 융합, 통합, 글로벌 등 다각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융합의 창으로 다시 보다'의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섬머포럼은 가족이 함께하는 포럼구성으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균형잡힌 인생의 성공을 위해 3박 4일 동안 가족의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비전 여행에 함께하셔서 비전과 경영, 행복한 휴식을 동시에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일 차 PROGRAM 7월 29일 (일)

세상을 여는 창

일정	프로그램
	참가자등록 및 체크인
15:00~15:10	[환영인사]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윤계섭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
15:10~15:20	[개회사] ● 조순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15:20~16:20	[기조강연]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경제의 난기류 속의 한국경제 - MB정부의 경제적 결산
16:30~17:30	[인재의 창] ● 문용린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저출산 고령화시대! 5천만 전 국민이 인적자원이다
17:40~18:40	[도전의 창] ● 송승환 PMC 대표 세계를 석권한 난타의 신화로 보는 국경 없는 엔터테인먼트산업의 미래
18:40~20:40	● <환영만찬> 한여름 밤 푸른 제주의 낭만! 참가자 친교한마당 ● <축하공연> 난타

2일 차 PROGRAM 7월 30일 (월)

경영을 만나는 창

일정	프로그램
7:00~12:00	제주섬머모름 골프대회 / 제주자유관광
12:00~14:2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4:30~15:30	[경영특강] ● 조태권 광주요 회장 한식 세계화 20년 '조태권의 문화보국'
15:45~16:45	[경영특강] ● 강성욱 GE코리아 총괄사장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과 미래전략
17:00~18:00	[경영특강] ● 조준희 기업은행 은행장 한국금융, 돈이 아닌 기업의 희망을 키워라.
18:15~19:30	[해외경영] ● 제임스 사이델 미국 커닝햄그룹 회장 문화를 팔아라-디즈니랜드와 라스베이거스의 문화혁명 이야기
19:30~	개별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3일 차 PROGRAM 7월 31일 (화)

인문학과 융합의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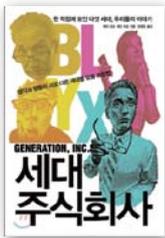
일정	프로그램	
7:00~12:00	인경희 회장배 골프대회 / 제주 자유관광	
12:00~14:2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4:30~15:30	[건강의 창] ● 김오곤 한의사 7대 한의사 뽕짝 허준의 CEO 건강비법	[재테크의 창] ●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부회장 재테크 고수와 함께하는 인생 100세 설계
15:45~16:45	[음악의 창] ● 최규성 대중문화평론가 대중가요로 보는 한국사회, 한류의 원천을 찾아서	[패션의 창] ● 정윤기 인트랜드 대표 대한민국 탑스타일리스 트에게 배우는 리더의 패션읽기
17:00~18:00	[예술의 창] ● 박대성 화백 한국문화의 거목으로 우뚝 선 小山의 예술정신	
18:15~19:15	[문학의 창] ● 한승원 소설가 시대를 일깨운 역사의 웅대한 산! 우리는 왜 250년 전의 다산을 그리워하는가?	
19:00~20:00	만찬 & 골프대회 시상식	
20:00~21:00	● <퓨전콘서트> 성악가 김동규와 함께하는 "7월의 어느 멋진 날에"	

4일 차 PROGRAM 8월 1일 (수)

미래를 만나는 창

일정	프로그램
7:00~9:00	아침식사 및 체크아웃
9:00~9:50	[미래경영] ●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대표 혼돈과 융합의 시대, 어떻게 기업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10:10~11:10	[미래의 창 토론회] ●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 염재호 고려대 교수 과학평론가와 사회과학자의 융합토론
11:10~12:00	[특별강연] ●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국 기업의 상생의 미래, 함께 가야 멀리 간다.
12:00~12:10	[클로징리마크]
12:10~12:20	[폐회인사]
12:20	제주공항 이동

* 상기 프로그램은 섭외 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장소영 실장 ☎ 070-8670-0135



세대 주식회사

래리 존슨, 메간 존슨/방영호 역/위너스북/276쪽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른 세대별 맞춤 코칭법!
 한 직장 안에는 67세 이상의 전통세대,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 조직의 핵심 인력 X세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Y세대, 그리고 막 조직에 발을 들여 놓은 링스터 세대 등이 함께 모여 지낸다. 그런데 문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상사 또는 부하직원과 크고 작은 일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며 지낸다는 점이다. 나와 다른 세대의 생각,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이와 관련하여 조직문화 코칭 전문가인 두 저자가 세대별 생각의 차이를 밝히고 지혜로운 맞춤 대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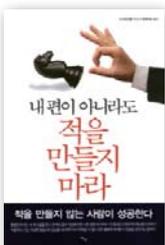
5년 후

더그 데이텀/고빛샘역/살림Biz/336쪽



비약적인 성장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당신의 조직을 견져낼 생존의 항해규칙!

이 책은 실린 누들즈 앤 컴퍼니, 인베스터스 모기지, 체임벌린 에드먼즈, 조지 뮤직 같은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일단 경영자가 성장의 늪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기업의 4M(Market, Management, Model, Money)을 잘 관찰하면서 성장의 늪을 항해하기 위한 '지도'와 '높은 시야', '항해 규칙'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로는 가혹하기까지 한 경쟁적인 환경을 각자의 독특한 방식으로 극복하고 최고가 된 책 속 기업 사례들은 당신과 당신의 조직에 커다란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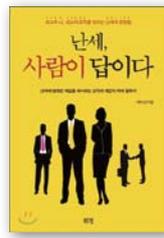


SNS의 모든 것

김대중 저/경향미디어/296쪽

대한민국은 지금 S.N.S 한다!

최대한 SNS의 기본적인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활용하는 원천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 책의 구성은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과 교육, 강의 등을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어떻게 하면 2030들이 SNS를 잘 활용해서 자신의 경력이나 비즈니스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가 저자의 의도이자 이 책의 핵심이다. 책을 쓰는 중에도 SNS에는 큰 변화들이 있었다. 그리고 SNS에 의해 기업이나 사회는 더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12년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큰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SNS는 이런 큰 이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난세, 사람이 답이다

백사선 저/리드잇/304쪽

최고의 나, 최고의 조직을 만드는 난세의 경영법!

춘추전국시대로부터 당나라에 이르기까지 난세를 극복한 영웅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시대와 인간, 삶을 통찰한 최고의 텍스트 <삼국지>, <사기>, <전국책>, <손자병법>, <회남자>, <논어>, <도덕경>, <인물지> 등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동양 최고의 고전을 통해 난세를 이기는 최고의 지혜와 통찰을 전달한다. 이 책은 역사의 고비 고비마다 진정한 리얼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보였던 그들의 삶을 통해 '난세의 인재 등용법', '난세의 출사표', '난세의 처세법', '난세를 경영하는 법' 등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4가지 주제를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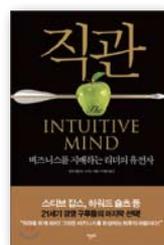


성공한 리더들을 사로잡은 명상코칭

김광호 저/코바나/310쪽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려라!

많은 리더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 매주 일정 시간 운동을 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한다. 마음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명상이다. 이 책은 명상에 코칭을 접목해서 리더들이 자기 수련뿐만 아니라 조직과 그 구성원들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를 지배하는 리더의 유전자

유진 새들러 스미스/이경아역/한문화/316쪽

비즈니스를 완성하는 최후의 퍼즐, 직관을 뛰게 하라!

오늘날 비즈니스 세계에서 '직관'은 탁월한 경영능력과 함께 경영자가 갖춰야 할 필수 덕목이 되었다. 21세기 '경영 구루'들이 자신의 성공비결을 직관으로 돌렸고, 수많은 경제경영서 역시 앞다투어 직관을 찬양하고 있다. 저자는 탁월한 리더의 직관은 데이터가 쌓아놓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의 빈틈을 정확하게 메우며, 이는 일반적인 경영 기술과는 또 다른 차원이라 밝힌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직관은 '오몸'으로 떠오르는데, 하워드 솔츠는 스타벅스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몸이 떨렸고, 레이 크록은 자신의 결정을 밀어붙였을 때 '퍼니 본(funny bone-팔꿈치를 부딪쳤을 때 찌릿하게 아픈 부위)'이 찌릿했다고 고백했다는 것이다.



2012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피가로의 결혼〉

18세기 고전시대를 그대로 재현한 화려한 의상과 웅장한 무대가 2012년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무대 위에서 그대로 펼쳐지는 뉴서울오페라단의 피가로의 결혼은 정통 오페라 구현으로 관객들에게 보는 재미와 고품격 감동을 선사한다. 모차르트의 3대 역작으로 손꼽히는 역작으로 품격있는 명품 공연, 수준 높은 완성도와 아름다운 아리아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 일정 : 5월 11일(금)~13일(일)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02-456-4392



2012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라트라비아타 - G.verdi작곡〉 독주회

비운의 여인..., 슬픈 사연을 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진실한 사랑! 그녀의 사랑 알프레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라고 한 제르몽! 알프레도의 트라비아타(Traviata)! 동백꽃잎처럼 가련한 그녀는 시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운의 여인이다. 오페라! 종합예술! 멋있는 최고의 오페라. 누구나 오페라를 알고 싶으면 춘희(La Traviata)와 함께 같이 웃고 같이 흐느낄 수 있다.

- 일정 : 6월 1일(금)~3일(일)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02-737-2224



2012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창작오페라 갈라〉

국립오페라단 창단 50주년 기념 '창작오페라 갈라'는 국립오페라단이 공연했던 한국 창작오페라 작품들을 재조명하는 무대이다. 1962년 국립오페라단 창단 기념으로 공연하였던 '왕자호동'에서부터 독일, 일본, 중국을 비롯하여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인정받은 '천생연분'과 2010년 '아랑'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의 정서를 고스란히 담은 주목같은 창작오페라들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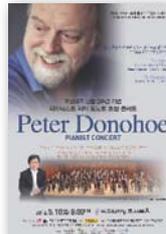
- 일정 : 6월 7일(목)~8일(금)
- 장소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 문의 : 02-586-5284



케니 지 콘서트

색소폰의 거장 케니 지의 이번 내한 공연은 최고 시설의 공연장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케니 지 밴드와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펼쳐진다. 기존의 소규모 밴드가 아닌 대규모 오케스트라의 반주와 케니 지의 색소폰 연주가 어우러지는 무대를 통해 그동안 체육관 공연장에서 느껴보지 못한 케니 지만의 색소폰 매력과 심포니오케스트라의 화려하고 웅장한 선율이 음악적 감동을 배가시킬 것이다.

- 일정 : 5월 23일(수)
- 장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문의 : 02-6292-9370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초청 콘서트

음악적 표현을 위한 느낌을 완벽하고 비상하게 해석해 자신의 일부로 표현하는 피아니스트란 평가를 받고 있는 금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본 공연에서도 거수인 피아노 협주곡을 국내 팬들에게 선사함으로써 음악 자체의 감동과 한국 피겨서상 최초의 금메달 획득의 감동을 동시에 전하고자 한다.

- 일정 : 5월 3일(목)
- 장소 :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문의 : 02-581-5404



페레티&로방 파이프오르간
듀오 콘서트 "Bon Voyage"

이번 파이프오르간 콘서트 "Bon Voyage"는 지난 해 "DANCING PIPES"에 이어, 기존 파이프오르간 연주회의 고정관념을 깨는 신선한 무대이다. 파이프오르간 사운드는 경건하고 무겁다는 기존 고정관념을 벗어나 이태리, 프랑스 작곡가 곡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유럽음악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무대 위 대형스크린을 통해 춤을 추듯 현란한 테크닉을 선보이는 연주자의 손과 발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중계할 예정이다.

- 일정 : 6월 23일(토)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
- 문의 : 02-399-1114

제746회 전남 장성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4월 19일(목)

책 속의 향기가 운명을 바꾼다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나라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전남 장성군(군수 김양수)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새로운 아카데미가 개강하는데 산파 역할을 하는 등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장성군은 장성아카데미의 전통을 이어갈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책 속의 향기가 운명을 바꾼다”를 주제로 강연해주신 다이애나 홍 원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리 · 정용달 홍보팀장(dal2020@kxdi.co.kr)

기업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이다. 살아남아서 직원들과 행복을 나누고, 나아가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데 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은 실로 눈물겹다. 신입사원은 능력을 바치고 리더는 영혼을 바친다는 말이 있다. 이제는 신입사원은 사장처럼, 사장은 신입사원처럼 첫 마음, 첫 열정으로 하나가 서로에게 성장의 선물을 주어야 한다.

인문학적 감성인재가 대세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을까?

제대로 된 기업은 우선 입사하면 내가 다시 학교를 다니는 느낌을 받는다. 첫 출근, 첫 발걸음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경영학적 교육을 많이 했다. 역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그래서인지 경영이 공격적이었다. 전쟁에서 2등은 죽음이며, 기업에서 2등은 도산이다. 급변하는 현실 속에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경영서적에 의존했다. 장사는 돈을 버는 것이고, 기업은 사람을 버는 것이다. 최고의 복지는 교육이라고 했듯이 교육을 통해 인재가 양성되고, 인재가 기업을 살린다. 최근에는 인문학적 감성인재를 찾고 있다. 왜일까? 감성이 이성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머리로 풀지 못하는 것은 가슴으로 풀어낼 수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 후계자들의 상당수가 의외로 경영학이 아닌 인문학을 전공했다. 삼성의 이재용 부사장과 이근희 회장, 고 정몽헌 회장,

정몽준 의원은 경영관련 수업은 대학원 MBA 등을 통해 익히고, 대신 대학교 학부에서는 기초적인 인문학적 소양을 배웠다.

경영학이 이성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인문학은 감성에 무게를 싣는다. 딱딱해진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업무에 감초 역할을 하는 신선한 아이디어도 딱딱해진 머리에서는 나오기 힘들다. 비워야 채울 수 있듯이 유연함속에 새로움이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인간의 가치탐구와 표현활동을 말한다. 미국 국회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에 따르면 언어(language), 언어학(linguistics), 문학, 역사, 법률, 철학, 예술사, 비평, 예술의 이론과 실천, 그리고 인간을 내용으로 하는 학문이 이에 포함된다. 인문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인물탐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으며,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았는가? 인문학이 아니라 인문정신을 배우는 것이다. 이는 고전을 통해 간접체험을 할 수 있다. 고전은 독서의 꽃이다. 고전에는 그들의 일상, 우여곡절의 인생, 삶, 죽음, 지혜 등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에 대한 통찰이 담겨있다. 수백 년이 지난 오랜 과거의 이야기지만 역사 속에 오늘의 우리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역사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고, 역사를 통해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

●다이애나 홍 원장

1967년생으로 경성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대한민국 독서 디자이너 1호로 삼성 등 기업체를 대상으로 독서경영 컨설팅 및 독서 코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대 AIP 독서클럽 코디네이터 및 전경련 GAMP 독서클럽 코디네이터도 맡고 있다. <다섯 친구>, <책 속의 향기가 운명을 바꾼다>, <다이애나 홍의 독서 향기>, <책 읽기의 즐거움>, <책을 안 읽으니 바쁠 수밖에>, <다이애나 홍의 독서여행> 등의 저서가 있다.



예술과 문화라는 감성의 키워드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술과 문화라는 두개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하다. 예술성은 기업의 최고 경쟁력이다. 글로벌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과 예술의 융합'이다. 글로벌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하는 경영자들에게 창조경영에 필요한 감성역량과 융합역량은 필수이다.

예술과 감성은 기업 경영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삼성경제연구소가 회원 CEO 436명을 대상으로 예술과 경영의 연관성을 조사한 결과, CEO가 보유한 '예술적 감각'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5.2%가 매우 그렇다, 50.9%가 그렇다고 답했다.

최근 조선일보 황원상 기자의 글을 보면, 최근 기업들 사이에 기술력 뿐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문화적 수준까지 아우르는 이미지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반 고객에게도 클래식 공연, 미술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마케팅이 활발히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품 추첨, 사은품 제공 등 일회성 이벤트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기업이 펴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마케팅은 클래식을 비롯해 오페라, 뮤지컬 공연을 후원하고 고객들을 초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클래식과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예술 강좌도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특정 소수를 위한 고급문화로 인식돼 온 문화예술 공연이 디지

털, IT기술의 발달로 저변이 확대되고 대중문화로 스며들고 있는 것도 기업이 문화예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 중 하나다.

경제 성장과 함께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오페라, 뮤지컬, 미술 전시회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관심이 크게 증가한 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호응을 얻을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슴으로 느끼고 영혼을 출렁이게 하는 각종 이벤트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력과 인문학적 통찰력을 키워준다. 같은 공연을 보고 느낌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며 행동으로 옮길 때 또 다른 세상을 열수 있다.

고전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

이제는 창의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 섬광처럼 스쳐지나갈 때 내 머리에 스파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잘 숙성되어있을 때 가능하다. 자료가 입력되면 시간의 흐름에 숙성되고 발효되어 나타날 때 비로소 창조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쉬운 방법은 역시 독서가 될 수 있겠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선 자신이 읽고 싶은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책임기든 운동기든

일이든 일단 즐거워야 하니까.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책은 마음을 촉촉이 적셔주는 책이 될 수도 있고, 몰랐던 부분을 가르쳐 주는 책이 될 수 있다. 읽기 싫은 책을 억지로 읽으면 머리만 복잡해진다. 관심분야의 책으로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인문학, 경영학, 철학, 역사 등으로 독서의 분야를 확대해가는 것이 좋다.

1892년 존 록펠러가 세운 시카고대학은 설립초기에는 삼류대학이었지만 2000년까지 오면서 70년 동안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73명이나 배출했다. 5대 총장인 로버트 허친스가 '스튜어트밀 식의 독서법'으로 철학 고전 읽기 방식을 교육방침으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동서양의 철학 고전을 비롯한 각종 고전 100권을 외울 정도로 학습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을 졸업시키지 않는다는 프로그램이다. 이 독서법으로 사물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 통찰력 등 입체적인 깊은 사고를 훈련시켰던 것이다. 이는 곧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최근 서울대 미래창조공부모임에서 느낀 것은 역시 미래에 대한 통찰과 예측이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다. 책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서 가슴에 풍요로움을 채우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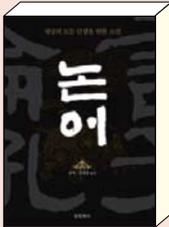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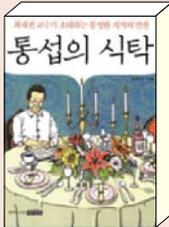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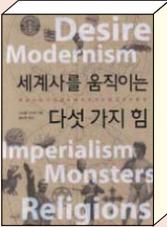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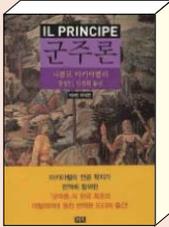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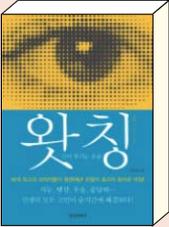
삼성과 현대기아차, LG, SK, 포스코, GS 등 주요 그룹이 신입사원 선발 시 인문학적 감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포스코의 서

양철학 인문학 강좌, LS전선의 인문학 지식 겸비 인재 육성을 위한 창조학교, 롯데백화점의 인문학 문화센터, SK케미칼의 조조 인문학 강연회, 휴넷의 모바일 행복한 인문학당 등이 바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10대 그룹 인사 담당자는 "주변과의 나눔은 미래경영 중 가장 세련된 전략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인간에 대한 본질적 탐구 능력과 인간에(愛)를 갖춘 이들만이 나눔 경영을 자연스럽게 꽃 피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인문학적 재능의 인재가 중요시되는 시대"라고 말한다.

매월 임원독서코칭을 하고 있는 포스코ICT에서는 '행복나눔 125운동'이 활발하다. 한 달에 한번 봉사, 한 달에 두 권 책읽기, 하루에 다섯 가지 감사하기다. 포스코ICT에서 시작해서 계열사, 외주 파트너사는 물론 포스코까지 '행복나눔 125운동'의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굳이 인문학도 출신일 필요는 없다. 기업이 인문학 강조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주기 때문이다. 보는 만큼 느끼고 아는 만큼 행한다는 말이 있다. 책으로 지혜를 얻고, 미술과 음악으로 감성을 느껴보자. 기업에서 사람 냄새나는 감성의 꽃을 피워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문학적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전을 통해 인문정신을 배워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전읽기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는 것이다. 독서가 중독이 된다면 이미 인문학적 감성이 가슴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이다. 독서의 새싹이 무럭무럭 자라서 무성한 열매를 맺길 희망한다. **김세미**

인문학적 감성을 꽃피울 책

- | | | | | |
|---|---|---|--|--|
| <p>1</p>  <p>일침 - 정민</p> | <p>2</p>  <p>눈어 - 공자</p> | <p>3</p>  <p>통섭의 식탁 - 최재천</p> | <p>4</p>  <p>섬광예지력
- 대니얼 버레스 외</p> | <p>5</p>  <p>역사의 미술관 - 이주현</p> |
| <p>6</p>  <p>세계사를 움직이는 다섯 가지 힘 - 사이토 다카시</p> | <p>7</p>  <p>군주론 - 마키아벨리</p> | <p>8</p>  <p>가끔은 제정신 - 허태균</p> | <p>9</p>  <p>왓칭 - 김상운</p> | <p>10</p>  <p>우리는 어떻게 설득 당하는가 - 조 내버로 외</p> |

평화롭고 풍요로운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 TPT 멘토링서비스 구상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한 삶에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보다 더 잘 살기 위해 동굴생활의 원시사회부터 시작해 보다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사회로, 보다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업사회로, 보다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산업화 사회로, 그리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지식·정보·통신·교통·교육 등의 혁명적 변화로 이어진 창조적사회로 진화하고 발전하여 오늘의 지식정보 혁명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행복추구의 행군을 이어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왜 인간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어떤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 자살률과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것이 50~60년 전인데 2012년 현재 세계 10위권 안팎이라는 기적의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와 사회적 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나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짖지만 3대째 권력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사회의 참상은 보다 더 잘 살기 위한 행복 행군을 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747' 공약을 내걸고 '경제대통령'으로 화려하게 출범한 MB정부가 임기 4년을 넘긴 지금 겪고 있는 레임덕 현상은 전 국민을 충격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4.11 총선 결과 국민들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패배에 대해 어느 중진 언론인은 그의 칼럼에 '기적'이라고까지 논평했다. 4.11총선을 거쳐 12월 대선으로 진군하며 한편 풍물놀이 굿판을 벌이고 있는 한국 정치지도자들의 정신 나간듯한 모습들은 자기만 알고 국민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한국정치의 현실은 위기의 시대를 기회의 시대로 역전시킬만한 탁월한 지도자를 길러 내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2월 19일 대선을 향해 뛰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물은 배를 뜨게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물은 백성이고 임금은 배이다. 임금이 잘못하면 백성들이 그를 징치하고 바꿀 수 있다." 올해 탄생 250주년을 맞은 다산 정약용이 18년간 강진 유배지에서 쓴 500권의 저서 중에서 <경세유표>라고도 하는 <다산비결>에 적고 있는 최고의 정치 멘토링이다.

나라의 주인은 결코 국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릇 이 시대를 이끌어갈 정치인은 그릇된 지배적 정치적 욕망을 접고 국민을 섬기고자 하는 서번

트 리더십으로 정치의 대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원자폭탄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키는데 공헌한 대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 인생만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그의 인생 회고록에 적고 있다. 다산 정약용은 인(仁)과 예(禮)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 "어짚(仁)은 하늘에서 땅으로 난 길을 내려오는 것이고, 예(禮)는 땅에서 하늘 쪽으로 열린 길을 밟아 올라오는 것이다. 어짚은 하늘 명령에 따르는 착하고 순한 진리이고, 예(禮)는 어짚이라는 착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어짚과 예는 어짚과 예가 아니고, 어짚과 예를 실천하지 않는 선비(지도자)는 선비가 아니다."

위기의 한국사회가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토로하는 국민들의 절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청하고, 측은지심으로 어짚과 예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자가 바로 섬김의 지도자이다. 하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자는 살고, 하늘의 소리 즉, 백성의 소리에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는 망한다(순천자(順天者)는 존(存)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는 공자의 말은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를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정도이다.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Better People Better World)'는 신념으로 지난 37년간 인간개발운동을 전개해 온 인간개발연구원은 '참 사람을 살리는 지혜의 인간학'이라는 의미를 담은 TPT(Total People Technology) 정신으로 연구원 40년사에 동참해 오고 있는 모든 강사진과 경영자 회원, 그리고 협력자들이 함께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회, 그리고 국가 등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교육 각 분야에서 TPT 멘토링서비스를 펼쳐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한 'TPT 멘토링 스쿨' 교육 훈련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위기의 시대를 통찰하고 있는 지도자들은 '인간만이 희망이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평화의 세계(P), 풍요의 세계(P), 행복의 세계(H)는 TPT 정신을 핵심으로 한 '인간개발'이라는 인류의 시대적 사명임을 절감하며 이를 정성어린 마음으로 주창하는 바이다.

끝으로 감리교의 창설자인 존 웨슬레이가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한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는 한 모든 분야의 사람들과, 할 수 있는 한 모든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남긴 명언은 평화, 번영, 행복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개발 TPT 멘토링서비스의 특별한 메시지이다. **김재민**

인문학자, 과학기술과 융합하다

작년에 삼성전자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뽑는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21세기의 다빈치라 불린 스티브 잡스(1955-2011)의 애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2011년 3월, 잡스는 아이패드2를 발표할 때 대형 스크린에 리버럴 아츠(교양 과목)와 테크놀로지의 교차로 표지판을 띄우면서 “교양과목과 결합한 기술이야말로 우리 가슴을 노래하게 한다”고 말했다. 현대 대학의 교양과목에는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어학 따위의 모든 학과가 포함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잡스의 말을, 인문학과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폰처럼 세상을 바꾼 제품을 만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쨌거나 인문학적 상상력을 정보기술에 접목한 잡스의 융합적 사고가 애플 제품의 세계 시장 석권을 일구어낸 일등공신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애플에 위협을 느낀 국내업체는 물론 정부 당국이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묘안을 찾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 말 출간된 <인문학자, 과학기술을 탐하다>는 주목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된다.

국내 인문사회학계의 쟁쟁한 필진이 함께 만든 이 책에는 문학, 어문학, 철학, 종교학, 사회학, 경제학, 행정학의 원로·중견·신예 학자 24명이 자신의 전공분야와 과학기술을 융합한 동기와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기술은 먼저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을 탐구하는 예술, 심리, 철학, 경제 등의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 결합해야 한다. 그것이 서로 다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소통하고,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융합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이유이다. 이제는 공급자 위주의 제품 중심 융합(기술)보다는 수요자의 가치와 만족도를 위한 서비스 중심의 융합(인문학+기술)을 추구해야 기술이 혁신을 이끌어 내게 할 수 있다.”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미래학자들은 향후 20년을 융합의 시대라고 말한다. 50년 주기의 장기적 경기 사이클인 콘드라티예프 파동설로 보면 지금은 제5파에 해당하는 IT가 주도하는 후반부의 융합이다. 그 다음에 밀려올 제6파의 사이클은 IT를 넘어 또 다른 산업융합의 시대가 될 것이다. 융합의 모멘텀이 될 플랫폼만 달라질 뿐 융합은 앞으로도 창조적 파괴를 이룰 원동력이다. 지금 우리는 거대하게 밀

려오는 산업융합의 시대를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따라가는 데 급급하다가 주저앉고 말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 학문 간 중첩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중북이 미덕인 시대에 자기 영역만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융합 시대의 낙오자가 될 것이다. 융합은 서로 다른 것 사이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를 발굴하여 개척해가는 작업이기에 항상 타자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낮은 것을 과감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함을 가져오는 일이다. 융합은 지식의 무한한 네트워크이다.” [임정택 연세대학교 미디어아트연구소 소장]

인문사회학자로 유일하게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과 인간, 사회, 그리고 국가 정책 간의 융합이 절실한 때이다. 이 융합에 성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선진화, 한인(韓人)에 의한 21세기 새 문명 창조, 한민족 사회의 평화 여부도 결정될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이 책을 기획한 나로서는 <지식의 대융합>과 <기술의 대융합>에 이어 마침내 융합 3부작을 완성하는 셈이다. **김세미**



● 이인식 소장

1945년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KAIST 겸직교수로 활동 중이며,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을 역임했다. 대한민국 과학 칼럼니스트 1호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에 450편 이상의 고정칼럼을 썼고, 월간조선, 과학동아, 주간동아 등에 150편 이상의 기명칼럼을 연재해왔다. 제1회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 제47회 한국출판문화상 등을 수상했으며, <이인식의 과학나라>, <지식의 대융합>, <이인식의 멋진과학> 등의 저서가 있다.

Korea's Best 금융기업에서 대한민국 투명경영 1위 기업까지!

KB금융그룹이 대한민국 최고 금융그룹을 넘어, 1,765개 상장기업 중
가장 투명한 경영을 하는 기업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 🏆 대한민국투명경영1위기업 (한국회계학회 선정 2011.05.25)
- 🏆 지배구조 우수기업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정 2011.06.24)
- 🏆 Best Korean Trade Bank (英 Trade Finance 誌 선정 2011.06.19)
- 🏆 2011 한국의 가장 사랑 받는 브랜드 대상 (조선경제, 국가브랜드위원회, 한국소비자학회 등 선정 2011.06.29)
- 🏆 2012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2년 연속 선정 (포춘코리아 2012.03.30)
- 🏆 국가고객만족도(NCSI) 6년 연속 1위 은행 (한국생산성본부 선정 2011.12.19)

*b KB 국민은행

*b KB 생명

*b KB 인베스트먼트

*b KB 저축은행

*b KB 국민카드

*b KB 자산운용

*b KB 신용정보

*b KB 투자증권

*b KB 부동산신탁

*b KB 데이터시스템

*b KB 금융그룹



함께 자라고 함께 살아가는 꿈
농협이 함께 꾸는 꿈

